



時 計 塔

SIGETOP



2006년 1월 15일 발행

서울대학교醫科大學美洲同窓會 發行

제33권 1호

172-10 45th Avenue, Flushing, NY 11358
snucmaa@yahoo.com / www.snucmaa.org
Tel: (718) 888-2622 Fax: (718) 888-2608

발행인: 崔 準 熙
편집인: 金 炳 哲

편집위원: 徐 亮
徐 仁 錫

자문위원: 盧 鎔 冕 李 熙 景
許 善 行 宋 寬 鎬

희망찬 병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동문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謹賀新年
祈願萬福
丙戌元旦
凡雅 姜祥琮 啓

신년사

더욱 내실있는 발전을 빌며

회장 최준희(64)



친애하는 그리고 존경하는 동문 및 가족 여러분, 그 동안 평안하시고 안녕하십니까? 신년에는 계획하시는 모든 일에 소원 성취하시고 만수무강을 빌면서 지면을 통해서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2005년의 한 해가 여연간 지나가고 송구영신의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장단이 출범한지도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돌이켜 보면 2005년에는 유난히도 많은 재앙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생명을 앗아가고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던 악몽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Hurricane Katrina, Rita, Wilma 그리고 Pakistan 의 Major Earth Quake 들의 천재지변은 역사 기록에 영원히 남겼지요. 저희 동창회도 많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총무 이하 각 Committee의 Chairman과 Member들의 부단한 노력과 헌신적인 봉사로 계획대로 살림을 잘 꾸려 나왔습니다.

연례 행사로 지난 11월 19일에 뉴저지 대원에서 거행된 Annual Ball에는 많은 동문들과 가족들이 참석하셔서 성공리에 끝났으며 특히 졸업 50주년 (Golden Anniversary)을 맞이하는 Class 55의 선배님들의 참석이 그 날 밤의 행사를 더욱 의미있게 해 주었고 Special Guest로 서울대학교 미주 총동창회장 이영목 님(공대 59 입학), 서울대학교 뉴욕지역 동창회장 섬기로 님(약대 57 입학)과 서울대학교 Golden Club 회장 정택수 님(문리대 46 입학)의 참석이 더욱 그 자리를 빛내 주었습니다. 또 1990년 이후에 졸업한 Young Generation 동문들의 참석은 많은 동문들이 우려하는 미주 동창회의 노력하에 새로운 활력소를 주었습니다.

Annual Ball에 무한한 노력과 아끼지 않는 협조를 해 주신 함춘회 회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는 6월 25일(일)부터 6월 29일(목)까지 거행될 Summer Convention이 New Jersey의 Atlantic City에 있는 Taj Mahal Resort Hotel 에서 있었습니다.

지난 호 시계탑에서 Summer Convention Chairman 권정덕(64)동문께서 자세히 보고드린 바와 같이 권정덕 위원장의 부단한 노력과 희생으로 Golf Courses의 선택도 신중한 배려 하에 이루어 졌으며 매우 바람직한 장소로 사료 됩니다.

또 Golf를 안치시는 동문과 가족 분들을 위한 Computer Education Session도 준비하고 있사오니 많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공적으로 끝난 Annual Ball 보다 더 많은 동문 및 가족들의 참여를 재삼 앙망하며 다시 회춘하는 동창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저희 회장단이 출범한 배가 아무 사고 없이 순항을 계속하여 6월 25일에 Atlantic City 항구에 Docking 하기를 빌며 다시 한번 동문들과 가족분들의 평안과 건투를 빌면서 신년사에 대신 하겠습니다.

신년사

새해는 웃음으로

편집장 김병석(59)



명술년 새 해를 맞아 시 한 수를 나누고자 한다. 중국의 시인 백낙천(白樂天)이 776~846 AD 경에 썼다고 전해진다.

滯牛角上爭何事 / 달팽이 뿔 위에서 무슨 일로 다투는가
石火光中寄此身 / 석화광중에 이 몸을 맡겼거늘
隨富隨貧且歡樂 / 넉넉한 대로 가난한 대로
또한 기쁘고 즐거우리
不用口笑是痴人 / 입을 벌려 웃지 않으면
어리석은 사람이로다

달팽이 집에서 몸이 나오면 머리에 뿔이 두 개가 나온다. 그리고는 이 뿔끼리 다투면서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 같은 몸에서 나왔거늘 이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계속 다투다. 이 지구상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같은 지구라는 땅덩어리 위에 속해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죽이고 하는가!

이 시에서 말하듯 우리는 부딪들을 때려서 일어나는 불빛과 같은 시간에 내 몸, 내 생명을 맡기고 살거늘 이런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도 모르고 살아간다. 사람의 수명이 70년이라 해서 길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었지만 우주의 행성과 행성 사이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리인 빛 광년씩이나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들으면 새삼 우리의 인식이 가능한 주변 공간과 지금 느끼고 있는 우리의 생명이 참나에 불구하다. 어떤 학문이나 종교가 아무리 영원히 살 것처럼 많은 것을 추구해도 세상은 아무것도 영원하지 않다.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 다투는가. 이 시에서 가르치듯 넉넉하면 넉넉한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모두 기쁘고 즐겁게 살도록 마음과 몸을 갖추는 것이 가장 좋은 행복과 성공의 정도라 하겠다. 스스로를 알고 스스로를 만족으로 채울 수 있는 사람만이 비울 수 있는 능력도 쉽게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시의 마지막 귀절에서 웃을 줄 모르면 어리석다고 했다. 이는 특히 필자를 두고 지적인 총은 가르침이다. 나는 평생 미소짓기 힘든 사람으로 모두에게 기억된 사람이다. 지금은 그래도 많이 나아졌지만 젊어서는 다른 이들로 부터 무섭다느니 거만하다느니 가까이 하기 두렵다느니 하는 말을 술하게 들으며 살아왔다. 참으로 나는 이런 쉬운 진리마저도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마음을 소유하였었던 것을 새해 이 시를 통해 깨닫는다.

웃는 얼굴은 환한 마음과 너그러운 마음에서 나오는 표현일 것이다. 늘 웃을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이들과 다투는 일이 없을 것이고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하지도 않을 것이고 주어진 것에서 즐겁게 넉넉한 마음으로 산다면 그것이 천상 낙원이리라. 나 또한 올해는 웃는 마음으로 웃는 연습 하면서 행복하고 싶다. 우리 동문 모두와 시계탑 편집위원들과 독자 모두에게 새해 축복으로 이 시를 보낸다.

동문 동정

2005년도 '자랑스러운 서울의대인'에 임현재(65)동문 선정



모교와 본국 동창회가 주관한 제 15차 등장의 날 홈 킵팅 데이 가 지난 10월 4일 오전 10시 모교 대강당에서 열렸다. 금년 행사에는 졸업 40주년을 맞은 65년도 졸업 동기회들의 주빈으로 초대되었는데, 하권익 동창회장, 왕규창 학장을 비롯 동창회 임원진들과 대학 교직원들이 참석하여 동창들은 환영해 주었다.

기념식에서 올해의 '자랑스런 서울의대인'으로 미국의 임현재(65)동문과 한국에서는 이희발(65)동문이 선정되었다.

임현재 동문은 시카고 지역에서 심장외과의로 개업하면서 미주서울의대 총동창회 총무 등을 역임하면서 동창회에 큰 공헌을 한 바 이 상을 받게되었다.

미국에서 신장내과으로 활동하다가 귀국한 이희발 동문은 순천양의대 교수로 근무하면서 많은 연구 업적을 내었고 '분위의학상'을 수상한 바 있다.

김영제(41) - 지난 11월 13일 오전 6시에 작고 하셨다. 뉴욕지역에 사시면서 전립선암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시다 세상을 떠나셨다. 이 분은 김동성(67)동문의 아버님이시다.

고 김영제 선생님은 1918년 함흥에서 김중석 목사님과 박치경 사모님의 차남으로 태어나셨다. 장모로서 믿음의 본을 보이시며 충성하시고 학계에서 귀한 사역을 하셨다. 은퇴 후에도 우리나라 의학계를 위해서 82세(2000년)에 "서구 계몽기의학과 우리들"이라는 438면에 걸친 책을 내셨다. 슬하에는 2남 3녀를 두시고 손주, 손녀 11명, 증손 4명을 두셨다.

1941년 경성의학전문학교 졸업 / 1945년 경성의학전문학교 조교수 / 1946년 광주의학대학 교수 / 1954년 의학박사학위 (전남대) / 1955년 미국 뉴욕대학 병리학교실에서 연구 / 1958년 가톨릭대학 의학부 교수 / 1966년 미국 뉴욕대학에서 연구 / 1970년 대한병리학회 회장 / 1971년 카톨릭대학 의학부장, 한국의학교육 협회장 / 1978년 카톨릭대학교 대학원장 / 은퇴 후 카톨릭대학교 의학대학 명예교수를 역임했다.

이흥빈(63) - Kingston, 뉴욕에서 은퇴한 후 뉴저지 포트리로 이주. 평소 좋아하던 Wine 공부를 작정, Wine College(WSET, London/International Wine Institute, NYC)를 이수하면서 Certified Advanced Wine Consultant가 되고, 각기 수차례에 걸쳐 이태리, 프랑스, 스페인, 캘리포니아, 엡스테이트 뉴욕 등 Wine Country 여행을 즐기다가, 맨하탄 건너 포트리 뉴저지에 친구와 함께 큰 Wine Shop을 열었다. 은퇴후 그 동안 청천벽력, 큰 아들(Richard, 용현)을 잃었다. Richard는 University of Pennsylvania를 나와 Wall Street(Goldman Sachs)에서 Financial Analyst로 일했다.

새 주소는 H. Binn Lee, M.D. / 246 McCloud Drive, Fort Lee, NJ 07024
전화: (201) 346-4373 / Drhblee@gmail.com

이동식 선배님의 결혼 60주년과 80회 생신을 축하합니다



2005년 10월 22일, 붉게 타올랐던 태양이 캘리포니아 서해안 수평선 끝으로 서서히 기울어져 가는 노을빛 향기가 들쭉 풍기는 Dana Point의 Ritz Carlton Pavilion에서 자녀들이 정성껏 마련한 이동식(54)선배 내외분의 결혼 60주년 기념과 선배님의 80회 생신을 축하하는 만찬회가 열렸습니다. 가족, 친지, 선후배 동문 그리고 교회분 등 70여명의 축하객들로 시종 기쁨과 웃음이 넘치는 향연이었습니다.

Laguna Hills 한인 연합감리교회에 시무하시는 김학준 목사의 축사 메세지와 기도도가 있는 후 선배님의 장남 이창우(71)동문의 인사말에 이어 toast master이신 박종식(52)선배님이 나오셔서 "결혼 60주년을 맞은 이동식 선배 내외분의 만수무강과 참석자 모두를 위하여!" 건배를 들었습니다. 손녀 Michelle의 멋진 바이올린 연주와 식사에 이어 림 목사의 축가, 그리고 클래스 메이트인 노영자(54)선배님의 재치있는 축사가 폭발적인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이동식 동문과 저는 같은 반에서 공부를 하였지만 그가 공부를 잘하였는지 혹은 못하였는지를 떠나서 우선 위 아래로 쪽 뺨은 큰 키에 너무나도 미남인 품쟁인지라 여학생들이 앞을 다투어 낀 줄을 섰던 기억 밖에 나지 않습니다." 모두들 이선배님을 바라보면서 박수갈채를 보냈는데 사모님의 안색이 약간 흐려지려는 듯한 모습에서 60년전의 추억을 더듬어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모두 기립해서 이동식 선배님의 80회 생신을 축하 노래를 부른 다음 케익 절단이 있었습니다. 교회분들과 이곳에 살고 있는 Mr. Jim Howard의 축사에 이어 이동성(57)선배님의 말씀에 참석자들의 열렬한 입이 다물어지면서 장내를 감동의 도가니로 이어지게 하였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이동식 선배님은 너무나도 자상하시고 다정다감하신 분이십니다. 제가 큰 수술을 받게 되었을 때 선배님께서 수술하는 날 이른 아침부터 수술이 다 끝날때까지 장장 8시간 이상을 지켜 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수술 후에도 퇴원을 할때까지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시고 오셔서 저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학교 후배가 선배님의 병문안을 가는것은 흔히 있는 일이겠지만 선배님이 후배의 병상을 매일같이 찾아주신 예는 극히 드물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회복이 되어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도 모두 선배님의 극진하신 간호 덕분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성 선배님의 말씀처럼 이동식 선배님은 그야말로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성실한 분이십니다.

이동식 선배님께서 인사말씀에서 그의 겸손함을 대변하셨습니다. "세월의 따름을 재삼 느끼게 됩니다. 80평생 허송세월을 한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지도편달과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의 제가 있게된 것입니다."

나는 선배님과는 각별한 인연이 있어 St. Louis에서도 같은 곳에서 살았고, 15년 동안 한 병원에서 Practice를 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10년 전 선배님의 결혼 50주년 기념과 70회 생신 축하연회 때에도 사회를 맡았었는데 이번에도 사회를 보면서 선배님의 화려한 약력과 다복하신 가족(1남 3녀 모두 MD, 사위 두 분도 MD, 그리고 여섯명의 손주)을 소개하는 영광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라옵기는 선배님 내외분 향후 건강에 유의하시므로 10년 후 결혼 70주년 축하연 때에 또 다시 초청해 주시기를 기원하면서 다시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 이덕송(60)

신년사

블록 렌즈를 통하여 한 빛이 되는 해

모교동창회장 하 권 익(63)



존경하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미주 동문 여러분! 희망찬 2006년 새해를 맞아 인사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액내 행운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참으로 다사다난 했던 2005년을 보내고 새해를 맞았습니다. 서울대학교 폐지론에 이어 모교 병원인 국립서울대학교병원을 하향 평준화하려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등 모교의 병원과 대학이 엄청난 시련 속에서 일년을 보내며 우리 전 동문들은 마음 아파하면서도 오히려 더욱더 결속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과학계의 수치스러운 부분을 극복하고 도약하는 발판으로 삼고자 하는 자발적인 노력도 보였습니다.

동창회에서는 총회에서 부족한 저를 훌륭한 이길여 전 회장님의 뒤를 이어 동창회장으로 선출해 주셨습니다. 전 동문들께서는 이제 동창회장 한 사람만 믿고 있을 수 없다는 인식으로 더욱더 똘똘 뭉쳤습니다. 각 동기회도 더 활발히 모임을 갖고 동창회와의 유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동창회를 힘 있는 동창회로 만들어야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19회 졸업동기회의 일천만원을 비롯하여 여러 동기회에서 동창회 발전기금을 자발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또 각 지회에서 더욱 활발한 모임을 갖고 동기회처럼 동창회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주 동문 여러분과도 훨씬 끈끈한 유대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의대 미주 동창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제 무대에서 활동해 오신 빛나는 업적들은 우리 전 동문들의 자긍심을 높여 주셨으며 여러분 모두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혹자는 우리를 모래알들이라고도 합니다. 남들은 진흙이고 우리는 각각이라는 뜻이지요. 이제 이 모래알에 시멘트를 부어 동창회가 철근 역할을 함으로써 영원히 한 덩어리가 되는 시점이 왔습니다. 어려운 때 일 수록, 오랜 세월 기다려 왔던 것처럼 하나로 힘을 합할 때입니다. 역사는 승리한 자의 것이고 강 한 자의 것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개인 개인은 모두 뛰여 나고, 개인 개인의 빛은 빛나지만 하나로 합한 힘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블록 렌즈를 통하여 모든 빛들이 한 지점을 통 할 때 세상을 볼 때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동창회는 우리의 블록 렌즈 역할을 할 것입니다. 세계에서, 미주에서 그리고 국내에서 모교와 병원, 동창회가 하나가 되어 밝은 미래를 향한 새해 첫 발의 의미를 다잡시다. 그리하여 2006년 송년의 밤에는 어깨를 열싸안고 하나된 힘을 느끼며 기쁨을 나누시다.

친애하는 미주 동문 여러분! 우리의 자랑스러운 서울의대인의 긍지만큼 우리는 국가적으로도 보답하고 기여해야 할 책무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시며 열심히 능력을 발휘하시며 보람찬 하루하루를 신나게 보내는 한 해가 됩시다.

신년사

새해에도 지혜와 역량을 모아

학장 왕 규 창(79)



희망찬 2006년 새해에 최준희 회장님을 비롯한 서울의대 미주동창회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액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해 연초에 우리 의과대학에서는 의생명과학관 등 연구공간 확장, 대학원 내실화 기틀 마련, 동반자 그룹 확대 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눈송 등으로 불거진 서울대학교와 정부와의 갈등 속에서 의학전문대학원 전환의 소용돌이와 이와 연관된 제2기 BK 사업 배제, 국립대학교병원 복지부 이관,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폐지안 상정 등은 이 글을 쓰는 지금도 하루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달려도 모자라는 우리 대학이, 납득하기 어려운 소모적 제도와 법안에 발목 잡혀, 엄청난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어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적지 않은 대학들이 우리나라 의학교육을 생각하기 보다는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가운데, 학생, 국가와 사회, 동반자를 위하여 힘쓰는 우리의 사명감 한편으로는 고독감과 함께 무력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더욱이 연말에 터진 황우석 교수 사건은 생명과학의 주축인 의학과와 세계적 기세포화버스를 개설했던 우리 병원에 엄청난 충격과 허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중심을 잃지 않고 교육과 연구, 그리고 진료와 봉사에 매진하는 대다수의 학생과 교직원, 그리고 동문들이 있기에 우리는 우리의 역할과 사명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앞날을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우리 모두가 보여준 수월성과 성실성은 여러 현안을 풀어감에 있어 우리의 당위성과 설득력의 근간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해에도 교육과정 개편, 인적 자원의 특성화와 효율적 자원 배분 등을 통하여 우리 대학이 경쟁력을 높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울러 크게 흐트러진 우리나라 의생명과학의 위상을 다시 세우는 일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꾸준히 우수한 인력을 배출하고 좋은 연구 성과를 내어 때마침 세계적으로 거세게 일고 있는 의생명과학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고 그간 우리에게 편중되어 유입되었던 우수 인재들이 나라를 살찌울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데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세계화의 급물살 속에서 우리나라에 국한되지 않고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인재를 배출할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동창회, 대학본부, 병원, 관계 기관과 단체, 그리고 서울의대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보여주시는 관심과 격려, 따뜻한 지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우리 모두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의대는 그 자신의 어려움을 감수하고서라도 우리나라 의학과 의료계가 희망을 갖도록 노력해야 하며 우리 동문들도 그러한 노력에 공감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모교소식

이종욱 WHO 사무총장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선정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으로 국위를 선양하고 있는 이종욱(76)동문이 '자랑스런 서울대인'으로 선정되어 서울대 총동창회로부터 상패를 받았다.

서울대 총동창회는 지난 10월 14일 서울대학교 개교기념일을 맞아 거행한 동창의 날 행사에서 이종욱 동문을 올해의 '자랑스런 서울대인'으로 선정하여 시상식을 가졌다. 이종욱 동문은 2003년 WHO 이사회에서 당당히 사무총장으로 선출되어 세계최고의 보건 분야 수장에 올라 국위를 선양해 오고 있다. WHO는 192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UN 산하 국제기구로 사무총장의 권위는 UN 사무총장의 뒤를 잇는다.

이 동문은 76년 모교를 졸업했으며, 1983년 WHO 서태지역 나병전문관으로 국제보건기구에서 일하기 시작하여, 서태지역 질병관리국장, WHO 본부 백신국장 등을 역임하며 국제보건계의 리더로 활동해 왔다.

인당장학회, 모범학생 94명에게 장학금 전달

인당장학회는 지난해 12월 1일과 5일 김해와 서울에서 각각 장학금 전달식을 열어 고교생 66명과 대학생 28명 등 94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인당장학회는 전국의 고등학교와 대학교로 부터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사회 모범이 되는 학생을 추천받아 총 94명의 학생을 선발했다.

인제대 백병원 백낙환 이사장이 지난 1988년 사재(私財)를 출연해 만든 민간 장학재단 인당장학회는 백년대계인 교육을 통하여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취지로 설립되었으며, 가계형편이 어려워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학업 성취의욕을 고취시키는 등 든든한 힘이 되어 주고 있다. 인당장학회는 1990년부터 현재까지 전국에서 선발된 1,185명의 중 고 대학생에게 모두 6억4천5백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으며, 인당장학회는 매년 수익금의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타교출신 교수 임용비율 급증, 최근 5년 타교출신 24% 차지

최근 5년간 모교에 임용된 교수 중 타교출신 교수의 비율은 24.2%이며, 또 여교수 임용비율은 16.7%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교는 지난 9월 국회 교육위 정봉주 의원(열린우리당)이 '서울의대의 자대출신 교원 비율이 96.3%로 국내 27개 대학 중 최고를 차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배포한 보도자료에 대해 최근의 임용실태를 근거로 한 반박자료를 통해 이같이 제시했다.

모교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임교수(63명)와 기금교수(123명)를 합쳐 총 186명의 교수를 임용했으며, 이중 타교출신 임용비율은 24.2%를 차지했다. 또한 임용교수의 남녀비는 남 155명, 여 31명으로 나타나 여교수 임용비율이 정부의 권고사항인 여교수 채용률 20% 방침에 근접한 16.7%의 비율을 보였다.

인제대, 김기용 의무부총장 - 이원로 의료원장 임명



지난 9월 1일 단행된 인제학원(이사장 백낙환) 인사에서 의무부총장 겸 의과대학장에 김기용(60) 동문이, 백중양의료원장에 이원로(62)동문이 임명됐다.

신임 김기용 의무부총장 겸 의대학장은 모교 졸업 후 런던대학 부속병원과 하버드 대학병원에서 수학했으며, 국립의료원을 거쳐 1992년부터 울산의대 의무부총장 겸 울산의대 학장을 역임한 바 있다. 학회 활동에도 앞장서 대한골절학회와 대한고관절학회, 대한척추학회, 대한정형외과학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국제골절외상연구재단(AO/ASIF) 명예학술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서울과 부산, 상계, 일산, 동래병원 등 산하 5개 병원(총 3천여 병상, 직원 5천 5백여명)을 총괄하게 된 신임 이원로 의료원장은 모교 졸업 후 도미하여 미국 조지타운대학 및 미국 제퍼슨병원 내과 부장으로 재직하며 심장병 연구분야에서 국제적인 명성을 쌓은 인물이며, 1994년 귀국하여 성균관대 내과 주임교수와 삼성의료원 심장혈관센터 소장 등을 거쳐 2002년 인제대 일산백병원장으로 취임한 바 있다.

모교 어린이 병원장 황용승(76)교수 취임

모교병원 어린이병원장에 소아과 황용승(76)교수가 임명됐다. 8월 26일자로 어린이병원장에 취임한 황용승 교수는 76년 모교를 졸업했으며, 국내 소아간질 분야 최고 권위자로 평가받고 있는 인물이다. 그동안 연구와 진료에 정진하면서도 서울대병원 홍보담당교수(95-97년), 서울의대 도서관장(90-01년) 등을 역임했으며, 최근까지 어린이병원 진료지원실장(03-05년)을 맡아 20주년을 맞은 어린이병원의 대대적인 개보수 공사와 증축사업을 지휘해 왔다.

한국 의료계의 큰별 한격부 박사 별세



본국 동창회 제19대 회장과 대한의사협회장을 지낸 의료계 원로 한격부 동문이 지난 9월 5일 새벽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2세. 고인은 1941년 서울의대의 전신인 경성제국대학 의학부를 졸업했으며, 모교 교수, 부산의대 교수, 국립의료원 흉부외과장 등을 역임하며 격동기 우리나라 의학발전을 이끌어 온 인물이다.

특히 고인은 전후 스웨덴과 영국에서 흉부외과학을 개척하는데 힘써왔으며, 서울시 의사회장(62-64년), 대한의학협회장(70-72년, 76-79년) 등을 지내며, 의사들의 권익을 옹호하는데도 큰 기여를 했었다.

故 한격부 동문은 모교 출신이지만 학문을 가르친 스승으로, 인술가로서의 본보기로서, 의료계 발전을 위한 지도자로서 존경과 신뢰를 받아왔기에 학연을 초월해 범 의료계가 애석함을 함께 했다.

2005~2006 제1차 이사회 초록



일시: 2005년 11월 19일 오후 4시30분
장소: Palisadium Restaurant,
Cliffside Park, NJ

사회: 서인석 (73) 총무
참석자:

- 노용면(55) 이만택(58) 이운순(58)
 - 김병석(59) 이희경(61) 정정수(62)
 - 추재욱(63) 권정덕(64) 김태환(64)
 - 송관호(64) 오태희(64) 조동준(64)
 - 최준희(64) 허선행(64) 이명희(66)
 - 최순채(66) 최영자(66) 노재홍(71)
 - 석창호(72) 오용호(72) 문대욱(73)
 - 서인석(73) 심인보(83) 김종호(86)
- Proxy:
- 정구영(57) 신상균(58) 최종진(59)
 - 한성업(59) 이경화(60) 박승균(61)
 - 이재승(61) 남성희(62) 이상무(62)
 - 조명호(62) 임춘수(63) 조하원(63)
 - 이한중(65) 임현재(65) 채무원(65)
 - 이종현(66) 이민우(67) 김홍서(69)
 - 엄규동(69) 이성춘(70) 인정길(70)
 - 오동환(71)

1. 성원 점검 [30 (6명 겸임)명 참석, 25명 Proxy: 총 100명 중 55명] 후 오후 4시 50분에 개회 선언.
2. 2004-2005 제2차 대의원회 회의록 (06/18/2005) 을 수정 없이 통과.
3. 최준희(64) 회장 인사 :
 - 이번 annual ball에 많은 동문들께서 참석 하신 것을 감사 드리며 내년 6월 25일부터 있을 summer convention 에도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합춘회 \$1,000, 동창회 \$1,000등 총 \$2,000을 Red Cross를 통해 카트리나 재해 성금을 기탁했음.
 - 지난 몇 년 동안 사장되었던 동창회 website를 내년 1월 1일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음. 많은 이용 바람.
 - 권정덕(64) convention 위원장 및 최영자(66) 학술위원장을 중심으로 summer convention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 Annual ball, summer convention 등

그 외 동창회를 위해 donation 해주신 동문들께 감사 드리며, 특히 기금 조성을 위해 수고하고 계신 추재욱(63) fund raising 위원장께 감사드립니다.

4. 서인석(73) 총무 보고:
 - 지난 몇 년 중 가장 많은 대의원들께서 참석해 주신데 감사 드림.
 - 준비중인 website에 많은 동문들의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인 새 directory발간을 위해 이성근(66) 동문께서 수고를 아끼시지 않고 계심.
 - Directory의 질도 높이며 fund raising도 할 겸 많은 sponsor들의 광고를 첨부할 예정이다. 주위에 있는 제약회사, 약국, 여행사, CPA, CFA, retirement village는 물론 동기회, 개업의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5. 심인보(83) 재무 보고 :
 - 지난 회장단에서 전해 받은 \$10,000, 회비 납부 \$50,320(403명), Mrs. 이진순의 donation \$3,000 등 수입에서 summer convention deposit \$5,000, 기타 central office rent 및 경비 등 지출을 빼고 현 은행 잔고는 \$45,556임.
 - 서인석(73) 총무가 지난 2년간의 재정 적자를 지적 (2005년 10월 15일 시계탑 참조)하고, 현 회장단은 이 문제 타결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될 것을 건의함: 2003년 6월 30일 \$19,222 흑자 잔고가 2004년 6월 30일 - \$2,765, 2005년 6월30일 - \$17,569로 2년 연속 적자 잔고로 바뀜. 많은 대의원들께서 타결 방안을 제시함: 지출을 최대한 억제함과 동시에 회비 collection rate도 향상시켜야 됨. 지난 몇 년간 500명 내지 600명 회원이 회비를 납부함. 동기회장을 통해 미납 동문들에게 개별 권장하자는 안, 회장이 다음 시계탑을 통해 혹은 따로 권고 편지를 내자는 안 등이 상정됨. 매 회장단이 적자 부분에 대해 책임을 지게해야 된다는 안이 나왔음. 수반되는

부작용을 고려해 각 회장단에게 annual ball 및 convention에서는 반드시 흑자를 내고 (Non-profit organization 규정상 모든 행사는 fund raising이 주 목적임) 전체적으로도 적자를 내지 않도록 권고하는 것을 대의원회 초록에 명시하는 것으로 결정 함.

6. Committee 보고
 - (1) Finance: 최순채(66) 위원장
 - Balanced budget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함.
 - 과다 지출을 방지하고 fund raising을 통해 directory 출판비의 충당을 권고 함.
 - (2) Scholarship: 문대욱(73) 위원장
 - 지난 10월 고국 방문 중 학생담당 부학장과 모교 학생에 대한 scholarship (\$10,000 한도 내)과 green project에 대한 의견을 교환 함. 졸업생들의 도미에 대해 예상외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적극 지원을 약속 함.
 - 오태요(62)동문 자제가 제공하는 재학생 두 명에 대한 장학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함. 이만택 위원장께서 장학금을 동창회를 통해서 제공하면 본인의 세금 혜택 뿐만 아니라 다른 동창들 및 자제들에게도 좋은 자극제가 될 것임을 강조함. 새로 마련될 website를 통해서도 이를 권장할 것을 건의함. 문 위원장이 이런 좋은 사업등을 포함, 지속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회장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것을 고려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함.
 - 문 위원장이 장학생 선정을 현재 보다 조금 앞당겨 summer convention중 장학금 시상식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함.
 - (3) Fund raising: 추재욱(63) 위원장
 - 현재까지 annual ball \$6335, summer convention \$3,000, 기타 \$4,100의 fund가 거쳤음. 앞으로 directory와 summer convention을 위해 더욱 노력 할 예정이다.
 - 지난 3월 convention때 speaker 들에게 수입금 전액을 지불 한 것은 fund raising 목적에 부합하지 않았음을 지적 하고 앞으로는 시정되도록 건의함
 - (4) Scholarship fund management: 이명희(66) 위원장
 - 10월 31일 현재 \$ 415,000 잔고(80% stock, 20% bond)가 있음.
 - 년 평균 8% 이상의 수익을 올려 매년 \$20,000의 장학금을 지불하고도 꾸준히 잔고를 늘려 가고 있음.
 - (5) Publication: 김병석(59) 위원장
 - 심한 원고 부족을 겪고 있음. 동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 10월 시계탑에 많은 오자가 있었다는 지적에 김 위원장께서 개선을 약속 함.
 - (6) Advisory & exchange: 이만택 위원장 - 보고 사항 없음.
 - (7) Research & Fellowship: 오태희(64)

- 위원장
 - 염선영(00) 회원의 proposal은 지난 어느 candidate 못지 않게 훌륭했음. 최 회장을 통하여 모국 동창회에 서류를 보냈음.
 - (8) By-law: 노용면(55) 위원장
 - By-law 중 몇몇 correction을 했음.
 - 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성원이 문제가 되는 것 같으니 위원들과 상의 후 다음 이사회에 안건을 제출할 예정이다.
 - (9) Nominating: 이한중(65) 위원장 - 안건 없음.
 - (10) Green project: 서인석(73) 위원장
 - 새로 마련되는 website를 통해 미국에 거주하면서도 동창회 행사에 소극적인 young member들과의 대화를 늘려 나갈 예정이다. 미국에 오고 싶어하는 모교의 재학생 및 졸업생들과의 연락 및 대화도 website를 주 매체로 이용할 예정이다.
 - 동창회 general fund가 적자인 상태에서 일단 website 비용은 green project fund에서 지출할 예정이다.
 - (11) Silver project: 민경탁(65) 위원장
 - Silk road 여행은 아주 성공적이었음.
 - 내년 summer convention 중 non-golfer 들을 위한 computer 교육이 필요할 것 같음.
 - (12) 2006 summer convention: 권정덕(64) 위원장
 - Annual ball이 끝나는 대로 좀 더 적극적으로 매진 할 예정이다.
 - 골프장은 예약이 끝났고, 내년 1월 초 중 Taj Mahal을 다시 한번 방문 모든 세부사항을 점검 할 예정이다. 서인석 총무가 1월 시계탑에 draft program 이 반듯이 게재되어야 할 것을 강조함.
 - (13) 2006 scientific: 최영자(66) 위원장
 - 반 이상의 speaker들이 벌써 선정되었고 그 중 많은 speaker들이 young member들임. CME는 예전과 같이 New York College에서 받을 예정이다.
 - 7. New business:
 - 서인석 총무가 balanced budget을 위해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central office를 Mrs. 김혜경의 지하실 (Nicely finished)로 옮기는 것을 건의함. 약 \$13,000 - \$14,000의 지출을 절약 할 수 있음. 몇몇 대의원들의 의견 제시 및 토론 후 만장일치로 가결 함.
 - 김태환(64) 부회장께서 미네소타 대학과 서울의대 자매 결연 50주년 행사가 성대히 개최 되었음을 보고함. 이재승(61) 전회장, 모교에서 문신용(74) 산부인과 교수, 황우석 교수 등이 참석 함.
 - 8. 폐회: 오후 5시 45분 기념 촬영 후 폐회함. 다음 대의원회는 2006년 6월 25일 Atlantic City의 Taj Mahal에서 있을 예정이다.

동문들의 협조를 구합니다

동형근 회장단과 이성근(66)동문의 노력으로 지난 2001년에 산뜻하면서도 내용도 충실한 미주 동창회 주소록이 발간되었습니다. 그 이후 동문들의 주소에 많은 변화가 있었을 뿐 아니라, e-mail 주소와 핸드폰 번호를 첨가함으로써 동문들 간의 소통을 더욱 원활하게 돕기 위해 새로운 directory 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1월 1일을 기해 오픈된(계속 보완될 것임) web site(suncmaa.org)에도 첨부할 예정입니다.

Fund raising을 목적으로 주소록 뒷부분에 동문들과 sponsor들의 광고를 게재하기도 했으니, 동문들의 참여는 물론 주위에 있는 기업체 (제약회사, 약방, CPA, CFA, Real Estates, 보험회사, 여행사 등등)들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광고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Full Page(Gold)\$3,000	Full Page(Silver)\$2,000
Full Page(Plain)\$1,000	Half Page(Plain)\$500
Quarter Page \$250	

동창회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SNUCMAA / 172-10 45th Avenue, Flushing, NY 11358
 Tel: (718) 888-2622 / Fax: (718) 888-2608
 suncmaa@yahoo.com

Fund raising committee chairman 추 재 욱 President 최 준 희

동창회비 납부하신 동문 명단

2005년 7월 1일 부터 2006년 1월 15일 까지 402 동문 납부

- 41 이규용 47 장석주 48 최원로 한용현
- 49 고영철 50 주 일 한원봉
- 51 곽 흥 박준홍 오정희 이상하 52 김은태 김정준 김호연 전병규
- 53 김형건 정약훈 54 이동식
- 55 김용선 김웅식 노용면 박병원 양겨영
- 56 박상기 서상철 손종수 신명수 윤신원 조동립
- 57 강영섭 김양호 김용진 김일훈 오세근 유상환 윤 찬 이동성 이민자 임종원
정구영 정진묵 정희영 한성택 황대연
- 58 김기태 김백년 김수산 김시한 노인규 박호현 배영섭 신상균 이만택 이상설
이문순 이종국 이종용 최정희 최창송
- 59 강재룡 김교안 김병석 김용덕 김은섭 김한섭 나길진 박형돈 방석운 신영철
심충섭 유태준 이교락 이영모 이원호 임낙중 임원기 채규철 최용천 최종진
최혜숙 한달수 신한수
- 60 김영환 김인환 김주택 김택경 박명근 박정우 박춘명 송영조 염극용 전희근
이경화 이덕송 이상일 이순환 이애영 이종석 이효빈 임종원 임필순
- 61 강창욱 고의걸 김성준 김영기 김영철 김화섭 박승균 박준환 서휴열 손기용
손주현 안창현 양명교 오정환 이재두 이재승 이철희 이한수 이희백 이희경
장태환 정의철 조경하 조은순 최공창 최용삼 최지원 최태순 홍창기 황현상
- 62 강광원 권익현 구정률 김석식 박진수 박찬형 박태진 문상규 민경환 송용두
오태요 윤홍철 이경목 이기범 이상무 이상원 이석우 이용길 이태봉 장병호
장순필 장합순 정경수 정 태 정훈일 조병호 진홍우 한상호
- 63 강광섭 김승태 김충열 김태용 김택수 박병학 박세록 박용준 마동일 서경석
송용덕 신영규 양찬기 왕규현 윤영섭 윤영욱 윤진수 이능석 이범세 이병준
이수인 이승현 이종두 이종민 임춘수 장세곤 조한원 최은구 하상태 한광수
선우건영
- 64 권정덕 김용두 김태환 라찬국 박한영 송관호 신두식 안연승 양문택 오태희
유 감 유광현 유창남 윤홍기 이광신 이길수 이웅만 이유찬 이재종 이정필
이종성 이주영 이홍표 임대묵 정유석 조동준 조성준 최준희 한태진 홍선경
홍준호 선우세현
- 65 강길원 권태해 김욱현 문형성 민경탁 박수안 백혜태 서좌일 서홍석 손광호
윤원길 이광선 이범석 이정희 이종희 이재명 이한승 이한중 장재찬 정길화
조성구 지영환 채도경 채무원 최동욱 최영인 한원민 한재은 홍수웅 황규정
- 66 김용재 김은한 김의신 김충규 김 한 남궁승 노재선 박용길 박준석 민발식
심정섭 이 룡 이병희 이성근 이종현 장한교 정양수 조관상 조충열 최순채
허서룡
- 67 강명식 경우현 김명선 김성철 김영곤 김영철 김인귀 김재석 김태용 박희병
문경용 유 달 유진일 이근웅 이민우 이소희 이태석 이태안 지일성 최무용
최승용 최재홍 한영수
- 68 고남규 김경인 김성열 김영남 김주평 김희주 노영일 문광재 박정식 서관우
서영일 서문석 송창호 신규호 안세현 유우영 이진일 임공세 차재철 최 철
홍광신
- 69 김영일 김운성 김일환 김재욱 김중권 김창남 김홍서 변영석 송기인 송용재
신영찬 안병일 엄규동 윤효운 이용환 이충호 이치훈 임만우 임용규 최종진
- 70 김광현 김일균 김형달 문성길 방준제 백낙운 인정길 조남현 조영갑 최광택
- 71 강유구 강창홍 강태수 고기영 김유식 김효순 김 훈 노재홍 배성호 서상현
서정자 송찬기 오상현 오동환 이성길 장 철 정인용 조세진 최수강 최영철
홍성진 황동하
- 72 김광호 김종영 석창호 오용호 이기진 이신재 장병호 최인섭 황용규
- 73 김천일 나두섭 문대욱 민인기 방병기 서인석 심완섭 오인환 이영복
- 74 권철수 김웅진 이문건 이진현

- 75 김자역 박인영 전경배 76 박세화 77 강준희
- 78 김동수 79 김옥동 88 심인보
- 85 임하진 01 김태곤 02 염선영

2005-2006 장학금기부하신 분(2005년 7월 1일 ~ 2006년 1월 15일)

노용면(55) 75 정진묵(57) 75 최창송(58) 100 박명근(60) 75 오정환(61) 200
 황현상(61) 75 민경환(62) 75 박태진(62) 100 조명호(62) 200 최영수(62) 100
 선우건영(63)100 왕규현(63) 100 임춘수(63) 100 권정덕(64) 50 이재종(64) 100
 이광선(65) 25 박준석(66) 100 조관상(66) 100 김명선(67) 200 이태석(67) 100
 서관우(68) 100 이진일(68) 100 최종진(69) 100 김유식(71) 50 김효순(71) 125
 배성호(71) 100 서상현(71) 075 서정자(71) 100 장 철(71) 75 정인용(71) 100
 최수강(71) 100 김웅진(74) 100 김자역(75) 100 Total \$ 3,075

2005-2006 Green Project 기금기부하신 분(2005년 7월 1일 ~ 2006년 1월 15일)

최창송(58) 100 이종석(60) 075 박태진(62) 100 임춘수(63) 100 권정덕(64) 25
 김태환(64) 50 차재철(64) 25 최종진(69) 100 김유식(71) 50 정인용(71) 100
 서인석(73) 100 김웅진(74) 100 Total \$ 925

2005-2006 Donation 하신 분(2005년 7월 1일 ~ 2006년 1월 15일)

강영섭(57) 100 이태봉(62) 125 조동준(64) 500 이한중(65) 100 김주평(68) 075
 정인용(71) 100 김웅진(74) 100 Total \$ 1,100

2005 Annual Ball Donation

신상균(58) 225 최창송(58) 100 추재욱(63)1,000 권정덕(64)1,000 김태환(64) 100
 유 감(64) 100 유창남(64) 100 최준희(64)1,000 허선형(64) 300 오용호(72) 300
 서인석(73) 100 New York Chapter of SNUCMAA 300
 Class of 61 200 Class of 64 500 Class of 69 & 70 300 Total \$ 5,625

2006 Summer Convention Donation

추재욱(63) 1,000 권정덕(64) 1,000 최준희(64) 1,000 Total \$ 3,000

동문들에게 드리는 말씀

우리 동창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시계탑을 더욱 건전하고 다양하게 발전시키기 위한 좋은 방법을 모색하던 중 여러분께 몇가지 부탁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각 지부에서 한 분씩 동창회 기자로 활동할 분을 임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분의 역할은 각 지부에 숨어있는 인재를 발굴하고 원고를 청탁해 받고, 각 지부의 동창들 소식을 수시로 기사로 써서 시계탑 본부인 저희에게 보내주고 출판 위원 모임때 참석하여 주시는 것 입니다.

아무쪼록 시계탑의 발전을 위하여 협조바라며 결정되는대로 이름, 졸업년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알려주시면 곧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조언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편집장 김 병 석 드림

Tel: (718) 460-5190
 dkim68@nyc.rr.com

2006 년도 장학생 선발요강 공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미주동창회에서는 2006년도 장학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동문 자녀 및 동포 학생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대상: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재학생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각 분야에서 특기가 있는 동포 자녀 및 유학생, 서울대학교와 서울의과대학 동문의 자녀로서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자

모집인원: 5명 이하 (\$2,000 내지 \$4,000)

구비서류: 신청서(Website에서 download 받을 수 있음), 성적증명서, 자필소개서, 추천서 2통

응모기간: 2006년 3월 31일 까지

발표 및 장학금 수여: 발표 - 2006년 5월 15일 / 수여 - 2006년 6월 28일 Summer Convention Grand Banquet에서

접수 및 문의처: SNUCMAA of North America / 172-10 45 Avenue, Flushing, NY 11358

Tel: (718) 888-2622 Fax: (718) 888-2608 / snucmaa@yahoo.com

www.snucmaa.org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미주동창회 장학위원장 문 대 옥

성대하게 치뤄진 2005

너무 일찍 나가는 게 아닐까 하며 세시 반에 도착해 연회장 안을 둘러보니, 언제 나오셨는지 멋진 흰색 투피스에 머리도 예쁘게 단장하신 함춘희장 미세스 최가 연회장 구석구석을 돌아보고 계셨다. 얼마 안 있으니 함춘희 부회장 미세스 오랑 동창회 본부 미세스 김까지 나타나 부지런히 접수 준비를 하고 있었다. 파티는 여섯 시 반이나 되어 시작되는데....

네시 반부터 시작하는 대의원회 모임 장소에 도착하니 마련해 놓은 좌석이 모자라 테이블을 더 만들고 있었다. 동창회원들의 평균 연령이 65세, 동창회 행사가 점점 축소되 가는 것 같고 회원들의 열성도 점점 줄어 드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던 중, 예상치 못한 열기를 느끼며 무언가 뿌듯한 느낌이 들었다. 9월말에 있었던 뉴욕지부 골프대회에 80년대 최 전성기때의 숫자에 버금가는 52명의 참석을 보고 혹시나 했는데, officer들과 committee chairmen중 한 명을 제외한 전원 참석은 예기치 못한 훌륭한 성적이었다. 동창회가 고사 할 지도 모르겠다고 걱정했던 것은 나만의 기우였구나 하는 안도감을 느끼며, 진지하게 토론을 하시는 대의원 한 분 한 분께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렸다.

커다란 풍선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는 접수 테이블에 예쁘게 차려 입으신 함춘

회원들께서 한껏 애교를 부리시며, 접수를 기다리시는 회원 부부들과 인사하시기에 바쁘셨다. 140명을 개런티 해야 되다며, 혹시 적게 와 벌금을 물면 어쩌나 걱정하시던 최 회장님 부부의 심려를 가쁘히 날려 버리며 182명이 참가하는 성황을 이루었다. 연속 안타 세 개를 치고 만루를 만든 것같은 희열을 느꼈다. 다음해 summer convention에는 더욱 많은 동문들이 참가하여 만루 홈런을 날렸으면 하는 바람이다.

우연이었는지 첫 세 분 등록회원이 모두 58년 선배님들이었다. 파티 때 꼭 발표를 해달라고 하시던 이운순(58) 전회장님께 이 글을 통해 감사를 드린다. 멀리 버지니아에서 오신 이영목 서울대학교 미주 총동창회장님을 비롯 이내진, 이준행, 정택수, 성기로, 진봉일 등 내빈께서도 일찌감치 도착하셔서 파티의 흥을 더욱 북돋아 주셨다.

언제 봐어도 정정하신 이규용(41) 대선배님은 우리 동창들에게는 큰 바위 얼굴 이상 가는 존경의 대상이시다. 금년에 졸업 55주년이신 한원봉(50) 선배님, golden anniversary를 맞으신 김용식, 노용면, 양거영(55) 선배님께 장미 꽃을 달아드리며, 우리는 아직 18년을 기다려야 되는구나 하는 아쉬움과 아직은 젊구나 하



인사말을 하는 최준희 회장(위) 교가 선창을 하는 이운순 동문



Officer



Class of 41, 50, 52, 55



Class of 55 (Golden Anniversary)



Class of 63



Class of 64



Class of 64



Class of 67



Class of 67



Class of 69, 71

년 연례 만찬을 마치고

는 안도감을 함께 느꼈다.

이런 안도감도 잠시, 바로 옆 시끌벅적한 테이블을 돌아보니 나도 앞으로 남은 세월이 지나간 세월보다 훨씬 짧게 남은 lost generation 이구나 하는 절실함이 느껴졌다. 마운트 사이나이 병원에서 fellow 수업중인 김종호(86) 동문, 최근에 약혼한 이도은(99) 동문과 그녀의 약혼자, 부르클린에서 내과 수업중인 김현호(99) 동문, 피츠버그에서 온 강현석(00) 동문, 임신 8개월이라며 함박 웃음을 짓고 있는 장세권(01) 부부, 혈액 종양학 fellowship을 찾고 있는 최성권(01) 동문 부부, 필라델피아에서 온 송윤정(01) 동문 부부등은 우리 동창회가 오랫동안 갈망해 왔던 가장 소중한 소망중의 하나이다.

2001년 졸업생 세 명의 기수단 (교기, 태극기, 성조기) 의 입장때 우뢰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오용호(72) 준비 위원장의 개회 선언에 이어, 이운순(58) 전 회장님의 선창을 따라 오랜만에 교가를 힘차게 불렀다. 최준희(64) 회장님의 인사말 및 내빈 소개, 이영목 총회장님의 축사, 깜짝 소개로 등장한 한인 의사회 제프리 안 회장의 동계 학술대회 소개가 있었다.

십여년 전 "태산이 높다 하되....." 시리즈를 듣고 까무라칠 듯 웃어대던 wife의

열렬한 우상이었던 김태환(64) 부회장님께서 2부 진행을 맡아 하신다니 더없이 마음이 놓였다. 멀리 미네소타에서 이번 행사를 위해 특별히 참석하셨다. 언제나 멋진 음악을 선사하는 양세일 악단, 터질듯한 젊음을 뽐내는 최태은과 그의 댄서들의 특별 출연, 플로어를 가득 가득 채운 동문 부부들의 뜨거운 열정으로 파티는 점점 무르익어 갔다.

여덟 쌍이 참석하신 59년 선배님들, 18 쌍의 64년 선배님들 (캘리포니아에서 아리따운 두 명의 따님을 동행하신 조동준 차기 회장님 포함), 10 쌍의 67년 선배님들 (멀리 알바니에서 오신 학년대표 김상복 선배님께 특별 감사) 그의 모든 동문 부부들께 감사를 드리며, 내년 summer convention에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941년 졸업 이규용 대 선배님으로부터 2001년에 이르는 60년 차이의 동문들이 자리를 함께한 성대한 잔치를 준비하시느라 지난 몇 달 동안 가사를 팽개치고 노력하신 미세스 최준희, 오용호를 비롯한 합춘 회원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 서인 석(73)



Reception



Class of 59



Class of 61



Class of 62



Class of 64



Class of 64



Class of 65, 66



Class of 72



Class of 73 & 83



Class of 86, 99, 00, 01

聖山 張起呂 박사 10週忌 추모사

백 낙 환(51)
인제대학교, 백병원 이사장

사람과 인술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당신께 주신 사명으로 알고 평생을 봉사하고 헌신에 매진하셨던 聖山 張起呂 박사의 10주기 추모사를 합니다.

회고해 보면 장기려 박사는 지난 1996년 성탄절날 저녁에 86세의 일기로 생을 마감하셨고, 그날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에서 조사를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장기려 박사는 1928년 경성의학전문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시고 의사가 되어 일제하 민족의 선각자요 우리 현대의학의 개척자이었던 白病院 창립자 백인제 박사 문하에 들어가 현대의학의 꽃인 외과를 공부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수재자로 대학에 남아 후계자가 되어달라는 백인제 박사의 간절한 청을 마다하시고 평양에 내려가 14 후퇴 때 남으로 넘어오실 때 까지 평양에서 오직 사람과 인술의 외길을 걸으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대학에서 자신의 교실을 키우고 또 명성을 높이려는 세속적인 욕망보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원하시던 숭고한 뜻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남한에 오신 후 장기려 박사는 서울과 부산에서 서울의대, 부산의대 가톨릭 의대 교수로서 우리나라 의과학계 후학들의 존경과 사랑을 한몸에 받으며 많은 외과 의사를 키워내셨습니다. 특히 간암에 대한 대량절제술을 처음 개척해서 우리나라 간장외과의 시조로서 우리나라 의학계의 발전에도 크게 공헌하셨습니다.

장기려 박사는 특히 부산에서 사람과 인술의 사자로서 활약하셨습니다. 지금 고신대학교의 모체인 부산 복음병원을 창설하셨고, 또 우리나라 의료보험의 효시라고 볼 수 있는 청십자의료보험조합을 창설하고 청십자병원을 운영하시며 모든 가난하고 불쌍한 이들로부터 존경을 받으셨습니다.

박사님께서 은사이신 백인제 박사를 흠모하셨고 또 젊은 시절 백인제 박사의 청을 받들지 못한 아쉬움과 애석함에서 仁濟大學 白病院을 특별한 애정으로 대해주셨습니다. 세상을 떠나시기 바로 직전까지도 일주일 한번은 부산백병원에 들러 감의와 외래진료로 봉사하시던 선생님의 모습을 저희 후학들은 두고두고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장기려 박사는 인자함과 온화함으로 항상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셨으며, 남을 미워하지 않고 기쁨과 사랑으로 헌신하셨습니다. 이것이 박사님께서 저희들 후학에게 남겨주시 가장 소중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박사의 숭고한 뜻을 이어가기 위해 사람과 정성을 다하는 仁術로서 세상에 봉사하고자 다짐해 봅니다.

동양학 본부 사무실 이전

미주동양학 본부 사무실이 2006년 1월 1일을 기해 아래 주소로 이전하였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완성치 못했던 website도 개설하였으니 동문들의 많은 방문을 바랍니다.

SNUCAA / 172-10 45th Avenue, Flushing, NY 11358
Tel: (718) 888-2622 / Fax: (718) 888-2608
e-mail: snucaa@yahoo.com
www.snucaa.org

사람의 성격 형성에 주는 영향 중 주위 환경(가정, 사회) 과 개인 (육체, 유전), 즉, 후천적 또는 선천적 비중 어떤 쪽이 중요하냐 하는 질문은 오래 동안 논쟁이 계속 되고 있다. 개성 문제는 정신과의 특별한 흥미점인데 현 미국 정신과 풍조는 만사를 생물학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이 논쟁은 2000년 동안 계속되는 역사적 과제다. 즉, 사람의 본질은 육체적이나 또는 정신적이나 하는 인류가 공통적으로 추궁하는 질문이다.

동양에서는 원래 환경설이 강했던 것은 쉽게 짐작 할 수 있다.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 교육을 위해서 이사를 세 번했다는 이야기는 누구나 듣고 자랐고 한국 부모의 자식 교육에 대한 열성과 극성은 이미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

이런 사회학, 정신과학 분위기에서 급년 불에 "Asian Culture and Psychotherapy" 가 출판 됐다. 이 책의 특색의 하나는 약10 여명의 기고자가 전부 동양 출신이다. 동양 각국, 특히 중국, 인도, 한국, 일본의 전통문화와 정신과학의 현실을 주제로 한 논문들이다. 이 책이 취급하는 과제가 세계담독자들이 관심을 갖을 수 있을 수 있으리라 믿고 내가 이 책을 쓰게된 계기와 목적을 소개하고자 한다.

나는 1943 경북 중학을 나와 경성의 전에 입학했다. 8.15 해방 이후 경성의 대는 서울대와 합쳐서 1947년에 서울의과대 전문부를 졸업했다. 그 당시 우리들의 청춘은 암흑 했다. 일제 말기의 발악, 해방후의 혼란, 남북 양단의 비극, 그리고 3년간의 한국 전쟁.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이 돌아가는 세상을 바라 보면서 나는 그저 멍하니 쳐다만 보고 있었으며, 의대 졸업 후 무엇을 하겠다는 아무 계획도 없이 그저 물에 뜬 낙엽처럼 물 흘러가는데로 따라 흘러가며 세월을 보내다가 졸업 후에 서울 의대 내과에 무급조수로 일하게 됐다. 조수로 일하고 있었던 하루 JAMA를 어디서 빌려 읽게 되었는데 거기에 psychosomatic medicine에 관한 article을 보고 의학이 재미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것이 한 계기가 되어 나는 정신과 지양의 의욕이 생기기 시

동양문화 와 정신치료

장 석 주(47)

작 된 셈이다.

그 때부터 정신과, 특히 정신분석학에 관한 책은 미국공보원 도서관에 다니면서 닥치는 대로 빌려 읽었고 전쟁통에도 계속했으니 수년간의 난독이라 할 수 없다. 내가 이처럼 정신분석학에 몰두한 이유는 지금 회상해보면 그 이유는 이것이야말로 혼란한 사회, 혼란한 나의 정신 상태를 설명해 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정신과를 전공하기로 결심했다.

전쟁 중 부산 거제리에 있던 UN군 병원 포로수용소에서 여러 동문들과 함께 일하던 중에 뉴저지주 Camden시에 있는 한 병원에 intern으로 생전 처음에 타보는 비행기를 타고 한국을 떠난 날이 바로 휴전조약이 맺어진 1953년 7월 말 이었다.

그 병원에서 1년 internship을 마친 후 Brooklyn에 있는 Kings County Hospital

틀에서 해방된 삶

권 영 조(63)

날이기 보다는 남에게 맞추어 살아가는 때이다.

그러면 제 삼단계의 삶은 어떠할까? 은퇴 후에 생활은 외부에 의해 지금껏 살아온 것과는 달리 각자의 자율성과 해방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경지의 삶이라 하겠다. 누구를 위해 살기 보다는 내 자신에 충실해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남을 의식하기 보다는 본인의 소신대로 결정해서 조정하는 생활을 가질 수 있는 때이다. 자아의 견지에서 보면은 피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올바른 자율성을 가질 때이다. 그러나 자유해방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한 준비가 꼭 필요하겠다. 자유에는 책임이 수반되기 마련이니까. 물론 경제적인 자율성을 위해 사전 준비가 필요한 것은 무시할 수 없다. 경제적 해방 없이는 진정한 자유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서 준비해야 한다. 결국 행복은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막연한 인생 여정에는 행복이 거저 올 수 없다. 더욱이 20년 30년의 세월이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닐 터이니 지금껏 외부적인 필요와 타율적인 상황 속에서 살아온 제 이단계와는 달리 이제 소신껏 꿈대로 자신의 결정으로 지날 수 있는 인생을 맞이하였으니 가히 인생의 황금기라 부를 수 있지 않겠는가. 거기에 동반자의 합심협력이 있다면은 금상첨화라 하겠다. 그래서 공감이 좋아야 제 삼단계 인생이 쉽고 즐길 수 있는 때라 할 것이다.

그렇게 좋아 보이는 해방된 삶 같지만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두가지는 필요하다. 선행으로 누구나 보기에 아름다운 인생이어야 한다. 그리고 건감해야 한다. 평생 남의 건강을 위해 일해 온 터인데 이제는 우리 자신들의 건강을 돌보아야 인생의 유종의 미를 건을 수 있다 하겠다.

이제 제 삼단계의 문턱에서 여전히 새로운 꿈과 계획으로 흥분할 수 있는 나를 발견하고서 느낀 것은 "Life is good and so is God."

에서 신경과를 1년 마친 후 정신과 residency를 시작했다. 그곳은 정신분석 연구소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나한테는 꼭 맞는 곳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수련 시작하지 얼마 안 돼서 예상치 못했던 현상을 경험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정신과에서 말하는 'individual'의 개념이 내기 한국에서 경험했던 '사람'과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말이다.

서양의 정신과학, 정신분석학에서 보는 인간관은 내가 자라난 한국을 포함한 동양전통 사상과 인간관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그 당시는 본능적으로만, 형용할 수 없는, 이질감을 느꼈는데 그것은 반세기에 걸친 나의 끊임없는 탐구 후에 얻게된 결론이다. 다시 말하자면 'individual'이 나 '사람'이라 하는 것은 현실, 실질적으로는 동일하나 개념적으로는 큰 차가 있다는 것이다.

'Individual'에서 시작하는 이론이 동양적 개념의 '인간'으로 형성된 동양 정신, 문화를 해석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더듬어 여기까지 도달한 셈이다.

Tseng, W.S., Chang, S. C., M Nishizono. Asian Culture and Psychotherapy,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5.

동해 바다를 끼고 북으로 달렸다. 속초 주문진 양양을 거쳐가면 하진포 옆에 김일성 이기붕 이승만 별장이 있다. 새로 지은 김일성의 별장 계단을 오르면 그가 입었던 옷, 육이오 전투직접 남북한의 군사력을 비교한 설명문이 있다. 4.19 때에 집안 가족이 아들 이강석 소위에 의하여 자살을 했다는 이기붕과 그 부인 박마리아가 묵고 있었던 초라한 별장이라는 것이 있다. 그들이 쓰던 조그마한 나무침대는 그리 서글플수가 없다.

북쪽으로, 고성으로 달리는 빠스는 단숨에 금강산 콘도 우리 남측의 마지막 호텔에 멈추었다. 미주 서울대총동창회에서 온 우리 인원이 탄 빠스에 '문보라'라는 유니폼을 입고 모자를 쓴 안내원이 탑승하였다. 그리고 우리는 통일 전망대에 왔다. 얼마전 돌아가신 80이 넘으신 장모님을 이곳에 모신일이 있다. 바닷가 언덕위 집 그곳에 통일전망대가 있다. 이북 땅이 한눈에 바다 건너 보이는 곳이다. 함경도 함흥이 고향이신 장모님은 북을 향하여 울부짖으셨다. 눈앞에 있는 바다 건너 그곳에 계신 당신의 어머니를 생각하시며 이렇게 우셨다. "어머니- - 어-머니- 엄마!" 하시면서, 몇해 전에 세상을 떠나셨다. 반세기가 넘도록 그리워 하시던 어머니를 못보시고 말이다. 민족의 비극을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다.

지금 우리는 북측 영역에 속한 고성군 금강산 관광을 떠난 것이다. 37명의 우리 그룹은 서울대출신의 동창이거나 그 부인들 이었다. 의대출신은 두 명이고 간호대 출신 한 사람이다. 대부분이 북녘땅이 고향이었고, 모두들 은퇴하여서 더 늦기전에 고향이 조금이라도 가까운 38 이북의 땅을 밟아보고 싶은 이유에서 온 것일 것이다.

의예과 시절 여름 설악산을 등반을 왔다가 이화여자대학교 별장이 있다는 이 화진포에 들려서 놀던 그런 해변가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밤에는 북측의 침범을 경계하느라고 군인들이 숲속에 숨어서 경비하는 곳이다. 아름다운 하얀 거품을 일으키고 내려 밀리는 파도가 있는 바닷가에는 이제 끝도 없이 고여져 있는 보기싫은 철조망이 있다.

통일전망대를 지나 남측 사무소에는 대한민국의 직원과 현대아산에서 나온 사람들이 우리를 맞는다. 긴장감이 물기 시작한다. 여권에는 고성금강이라는 도장이 찍힌다. 혹시 누가 북쪽사람일까 하는 그런 의심을 시작한다. 이제부터는 말과 행동을 조심하여야겠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 그들은 모두들 함경도나 평안도 말이 섞인 악센트를 쓰는데 운전기사들은 체력이 좋았다. 건장한 사나이, 그들은 모두 현대아산에서 뽑아온 중국에서 온 연변사람 한국인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사상은 모른다. "우리는 연변에서 왔음메" 하면서 웃음을 지었다. 여기서 일하다가 수입이 세배이상 되는 서울로 가는 것이 그들의 목표란다. 가이드 문보라 양이 세심한 주의사항을 알려주었다. 모든 전화기 충전기, 카메라나 망원경이 그 파워가 썩 것은 압수되었고 나중에 돌려준다고 권어졌다. 비니루 주머니와 목에 다는 줄이 달린 ID 카드를 받았다. 늘 목에 걸고 다녀야 한다. 여권과 입국허가카드 거기엔 적힌 번호를 항상 목에 걸고 다녀야 한다. 유대인들이 나치수용소에 들어가기전 그렇게 한 것이 생각나서 기분 나빴다. 거기에 적힌 나의 번호판은 00924, 아내의 번호는 00925. 반드시 이 순서대로 줄을 서야 한다. 이거 괜히 온 것 아닐까? 공포의 하루가 길게도 느껴진다. 영영 이리다가 돌아가지도 못하고 잡혀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걱정도 들었다.

주의사항이 주어졌다. "절대로 빠스 속에서는 사진을 찍으면 안됩니다." 군사기밀이 누설될까봐? 답장은 길가에 높이 쌓아서 주민들의 동네가 보이질 않는다. 그래도 살짝 보이는 그들의 사는 모습은 무척이나 빈곤하게 보였다. 그것으로 위장한다고 그렇게 의심해

도 일부러 그렇게 빈곤하게는 보일 수 없다.

북으로 5분 더 달리니까 남측의 마지막 초소를 지났다. 현대식 무기로 잘 무장한 건강한 헌병들과 미군들이 길목을 지켰다. 그 곳을 지나 우린 북으로 계속 달렸다. 비무장지대 양쪽 도로 변에는 짙은 두 세겹의 철조망이 쳐져 있었고 야생의 풀과 잡목이 지뢰밭을 덮고 있었다. 불과 5분쯤 더 달렸을까 우린 북쪽 초소 앞에 닿았다. 얼굴이 새까맣게 타고 마른 북측 병사들이 총

평화와 행복이 공용될 수가 없다. 인류애를 바탕으로 하는 타협이 선행되어야 진정한 통일은 가능할 지도 모른다. 무사히 37명이 금강산 호텔에 결국 도착하였다. 두 대의 엘리베이터 앞에는 김일성 뺨지를 단 19세 날씬한 소녀들이 웃는 얼굴로 우리를 맞는다. 이 북말씨에 짧은 색동 조선치마 저고리가 눈길을 끌었다. 넓고 아릿다운 눈매가 참으로 고왔다. 남한의 배우들처럼 쌍꺼풀 수술을 받은것 같고 짙은 립스틱을 발랐다. 서양 화장품 냄새가 났다.

금강산 일만이천봉



제윤석 (68)

을 겨누고 날카로운 눈매로 우리의 차량을 주시한다. 북측사무소에 도착되었다. 모두들 긴장된 분위기다.

멀리 보이는 바닷가의 돌산은 수없는 크고 작은 자갈과 차들로 뒤덮혀 있고, 맨들거리는 모습이 하나의 조각품 같다. 육지와 산 그리고 파랗게 빛나는 바다. 이것은 우리가 보고 싶었던 명산 금강산의 입구였다.

그들이 말하는 소위 "미국제국주의 나라, 힘센 나라"에서 나타난 우리 일행을 따로 줄 세워서 하나 둘 검열하고서 들여 보내는 것이다. 이처럼 많은 수의 사람이 미국에서 온 것은 처음있는 일 이었다고 한다.

카메라를 따로 목에 걸고서 입산수속을 받았다. 나는 이처럼 가까이서 북측 병사들을 본 것은 55년 만이다. 육이오 전쟁시 공주에서 남진하는 그들을 어릴적에 피난길에 본 기억이 난다.

세관 입산검사하는 이 군인은 눈이 날카로웠고 세심히 컴퓨터로 내 사진과 인적사항을 따지고서 나를 통과시킨다. "아- 윤석병원 원장이십니까?" 혹은 "이기택 박사십니까? 두 번째 오시는군요 박사님" 등등 하면서.

금강산은 봄철의 이룬이다. 겨울은 개골산, 여름은 봉래산, 가을은 풍악산. 그러니까 우리는 풍악산의 단풍을 보러 온 셈이다.

효도관광으로 온 철학년 사반(74세) 할머니는 좋아서 미치려고 하기도 하고, 삼사십대의 젊은 경상도 전라도 사람들도 많다. 남한에서 근 오십만명이 지난 몇해 동안 다녀 갔다고 한다.

모두들 무사 통과인데 방금 나온 나를 다시 부른다. "서윤석 씨(동무)"하면서, 섬짓했다. 아내의 번호가 00925인데 내 다음에 나오면서 대답한 내용이 나의 기록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이다. 은퇴하였는데 왜 윤석병원 원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나 하는 의문에서였다. 자본주의 미국의 병원운영 시스템을 그에게 설명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그래도 그는 자꾸만 따졌다.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모양이다. 결국 나는 그를 납득시켰다. 그는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에서 사는 사람이다. 어찌 쉽게 이해할 수 있으랴. 나는 한순간 꼭 악몽을 꾸는 것 같았다. 나는 늙은 사람이고 그는 젊은 사람, 남측 사람 북측 사람, 미국과 북한, 이 모두 공간과 시간, 사회와 언어의 격차가 깊다. 그리고 사고방식이 몹시 다르다. 만일 우리나라가 통일되려면 우선 많은 사람들의 정신교류가 선행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이때 했다. 왜정 시대에 일본 천황을 신격화하여 그 가공의 신을 위하여 수많은 인간의 희생을 강요하였던 어리석은 일본인들의 잘못을 기억하고 있다.

극단적인 종교화된 사회, 인위적으로 인간을 신격화한 사회, 이것들은 인류의 참된 바램이 아니다. 이런 곳에서는

제일 좋다는 호텔인데 이곳에는 밤에 전기가 약하게만 켜진다. 너무 어두워서 책을 읽을 수 없다. 응급용 전지가 있어서 자세한 글을 그것을 비추어 본다. 텔레비는 LG에서 나온 것이고 남한의 KBS, SBS 그리고 CNN도 나온다. CNN 한글 자막은 지워져 있다. 이곳에서 일하는 북측 종업원들이 보는 것을 막기 위함일 것이다. 서울을 떠나서 호텔에 도착하는데 꼭 하루가 소모된 셈이다. 피곤하고 심한 스트레스를 당한 하루였다.

빠스 속에서 누가 사진을 찍었다고 잡혀 갔다고 했는데 그 진실을 나는 모른다. 과연 그가 찍었는가? 아니면? 찍었다면 그걸 어찌 아는가? 그가 진정 누구였는가? 우리는 모른다. 정치적 문제는 '함구묵언'이요, 누가 내편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 해방후 혼란기에 친한 친구가 과연 어느편인지 알 수 없었던 그런 시대와 같다. 혼돈의 3일을 보내는 것이다. 서로가 서로를 무서운 사람으로 느끼게 한다.

다음날 깊은 잠에서 깨어났다. 공기는 맑고 하늘은 푸르고 높았다. 긴 숨을 마음껏 들여쉬어도 숨결이 계속 열린다. 쉽게 내쉬고 들여마시고 그러면서 바라본 명산은 나의 피곤한 하루를 잊어버리게 했다. 바다 그리고 산 그 사이에 홀로 서 있다. 나는 여기에 왔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 금강산 앞에서 있다. 동쪽에서 뜨는 일출을 보기 위하여 왔다. 새벽햇살이 산 모서리에 떠있는 하얀 구름을 비칠때 그 산허리를 넘나드는 자유로운 새 한마리를 보았을때 나는 기쁨을 느꼈다. 환희와 전율 그리고 안타까움 슬픔 번뇌 공포 이 모든 것을 느꼈다.

산모퉁이 숲속에서 새어나오는 수십 명의 병졸들의 군가 소리는 나를 슬프게도 했다. 기억난다. 우리 형 그리고 아저씨들이 그 반세기전 여기에서 많은 피를 흘리며 싸우던 때를.

목류관의 평양냉면을 점심으로 예약하고 등산길에 올랐다. 구룡폭포, 삼팔담 왕복이 세시간 반 내지 네시간, 한창 무르익어 가는 단풍 맑은 물소리, 계곡을 따라 번져가는 크고 작은 이쁜 바윗돌. 기기묘묘한 형상이 절벽을 이루고 어느 것은 시루떡같고 어느것은 부처님 같고 어느 것은 토끼나 사자 같다. 가벼운 폭포 떨어지는 작은 연못엔 선녀들의 목욕소리가 들린다. 바위들 틈에 홀로 서 있는 소나무, 그 아래의 수천길 절벽! 이것은 무슨 조화로 이루어 졌는가. 단풍이 짙은 산등을 타고 그 사이를 흐르는 불타는 계곡, 이것은 절경의 극치이다.

사람들은 흔히들 그 흔적을 남기고자 한다. 잊혀지지 않은 때문일까? 수백년전부터 그렇게 새긴 이름 석자가 바윗돌에 보인다. 전설의 사나이 김삿갓도 여기에 왔다 간 그런 흔적이 남아있다. 중국 북경근처의 용경림이라는

호수의 절벽 바윗돌에는 장지민이라는 이름 석자를 새긴 것을 보았다. 이 아름다운 금강산에도 2미터 길이로 글씨를 새겨 놓았다. 이름과 그 교시 말이다. 누군가가 영원히 지기를 바랬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과연 인류 역사에 그 누군가 영원히 영원히 남을 수 있었을까? 아무도 나는 기억하지 못한다. 이 한가지 사실만 빼놓으면 이곳엔 공해의 흔적은 없다. 설악산 비선대에서 본 대형식당도 없고 그곳에서 흘러 나오는 불고기 냄새도 쌍화탕 냄새도 없다. 이 명산 그 자연 그 자체로 잘 보존되어 있어서 다행이다.

벌써 밤 바람은 싸늘했다. 호텔 이층 포장마차에서 송이버섯을 안주삼아 평양산 맥주와 순곡식으로만 만든 찹쌀막걸리도 마셨다. 조그마한 쟁반에 담긴 빈대떡도 맛이 있었다. 총금액이 18달러여서 팁을 2달러 더 주었더니 받지 않았다. 정가제라면서 "여행중 필요하실터인데 쓰시라요." 하며 돌려주기에 도로 받았다. 왼쪽 가슴에 단 김일성 뺨지가 눈에 띄었다. 애기 손바닥만한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니깐 찍고 난 다음에 그 사진 나온것을 들여다 보느라고 재미있어 했다. 그녀들의 미소는 따뜻했다.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평화가 깃들게 하소서 이렇게 나는 기도하였다.

만물상, 끝도없이 늘어진 일만이천봉 우리, 조용한 호수가 삼일포, 그리고 해금강, 산과 바다 그 산이 눈 앞에 어긋거린다. 산신령들이 바둑을 두고 있다는 그 형상, 그 위를 우리는 올라갔다. 젊은 남녀 경호원들이 말을 건다. 그들이 단 왼쪽 가슴의 뺨지를 만지면서 "이것이 김일성이고?" 하면서 손가락을 내밀었더니 "손가락질 마시라요." 하면서 성난 얼굴을 했다. 모든 그들의 대화는 일정했다. 철저히 교육을 받은 그런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 미모의 선전원은 늘 우리를 감시했다. 웃는 모습에는 가벼운 덧니가 보여서 인상적이었다. 우리 언제인가는 화합해야 할터인데... 그러나 말할 수 없이 산의 경치는 좋다. 설악보다도 지리산보다도 포천지나 산정호수보다도, 북한산 보다도 치악산 보다도 좋다. 모두들 세계 어느 산보다도 훨씬 좋다고 한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산은 우리의 산 인 것이다.

두번째 먹은 옥류관의 물냉면은 별미였다. 서울이나 미국에서 먹는 그런 것보다 순수하고 맵지가 않아 좋았다. 조그마한 접시에 담겨진 배추김치는 짜고 시지 않아서 좋았다. 빈대떡 그리고 같이 마시는 모밀차는 마시고난 뒷풀이 맑았다.

나는 곡예단이나 인민배우가 한다는 그런 공연은 보지 않았다. 인민화가장관급이 그랬다는 그림도 보기만 하고 사진 않았다. 온천도 하지 않았다. 맛사지도 받지 않았다.

마지막날 아침 금강산 호텔 문 앞에서 감나무를 배경으로 산을 넣어서 사진을 찍으려 하니깐 경비원이 '감알'을 넣어서 찍으라고 하기에 노랗게 익은 감알나무를 넣어서 사진을 찍었다. 두 밤을 지내고 나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 오늘이 남쪽으로 되돌아 가는 날이기 때문이다. 밝게 전등을 켜도 되고 내 생각을 마음대로 말해도 되는 그런 곳으로 돌아가고 싶다. 들어올때와 정반대로 북측사무소 비무장지대 남측사무소를 거쳐 무사히 되돌아 가기를 원한다. 2박3일의 여정을 마치면서 이렇게 나는 적는다.

이곳에도 사람은 살고 있었네 / 금강산 언저리 흰 구름에 / 아침 햇살이 찬란히 비치네 / 북에서 남으로 / 남에서 북으로 훨훨 나르는 새들아 / 아! / 자유로운 새들아 / 쓸쓸한 바닷가 비무장지대 / 차디찬 파도가 철책을 때리네 / 반쪽 달빛이 비추이는 산허리에 / 우리들의 모든 슬픔을 잠재우고 / 그러나 민자 사람들아 / 새로운 미래를 믿자 / 언제가는 푸른 하늘을 마음껏 나르자 / 그 언제인가는 우리 모두 자유로워라."



독서 여담

김 일 훈(57)

東道西器

현대의 우리 동양지식인은 동도서기(東道西器)라는 말을 쓰기 좋아하고, 이를 이상으로 삼고자 한다.

허영있는 나처럼 머리는 원대한 곳에 두되, 생활을 위해 안정된 직종(의사 등)을 택한 사람이 신봉하는 용어가 '동도서기'이다.

성경에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에서 '말씀'의 희랍어는 로고스(Logos, 神)며, 이를 중국성경에서는 도(道)라 번역했다. 동도(東道)는 최고 최상의 정신적인 것(道)은 그 가치와 비중이 있어 동양이 월등하고, 반면 서기(西器)는 기술과 물질적인 문화의 이기(利器)는 서양이 앞선다는 말이다. 나의 경우를 예로 들어, 내 머리는 道에 치중해서 자칭 독서인으로 행세하고, 내 기술은 西器에 의존하여 의사로서 일하는 내가 바라는 모습의 총칭이 '동도서기'이다.

그리고 사전에 나온 '독서인' 풀이는 다음과 같다.

A- 독서를 좋아하고 자주 읽는 사람,

B- 중국서 과거(科擧)로 관(官, 벼슬)자격을 얻은 자, 또는 그 집안계승, 사대부(士大夫), 지식인과 학자.

요즘의 독서인은 쉽게 말해서 A에 속할 것이다. 그러나 직업에 관계없이 독서취미가 있으면 누구나 독서인이 될 수 있다.

나도 그중 한사람이라 생각해 보지만, 내가 글 쓰는 문필가라고 여겨본 적은 없다. 그 이유는 내가 쓴 글이나 책내용은 내 취미생활의 소산물이고 밥벌이와는 전혀 무관하기 때문이다. 독자에 어필하는 상업적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며, 더욱이 권위있는 학문적인 글도 아니고 보면 독자에게 꼭 필요한 글도 아니다.

그런데도 나는 어릴 적부터의 취미인 책읽기에 더해서 지난 10년간 즉 50대 후반에는 문필가 행세도 해보려고 노력해 왔다.

쓴다는 일은 읽는 것과 달라 쉽고 즐거운 일만은 아니고, 짜증나고 골치 아픈 일이기도 하나, 그래도 짧은 글이라도 쓰고 나면 보람을 느끼는 재미로 계속 쓴다.

논어에 "일하고난 뒤 여력(餘力)이 있으면 글을 배우라"고 한 말씀이 나에게 용기를 준다. 은퇴전만 해도 내 전공인 의학을 생활도구로서의 일이라고만 여겼지, 독서처럼 유유자적한 학문이라고 생각해본 적은 결코 없었다. 그래서 내가 부러워하는 사람들처럼 취미와 직업(의학)을 내 생활화 하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있지만 풀이킬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위의 '논어' 말씀은 나의 독서취미에 영합하는 격언으로 들린다. 일하고 난 뒤에 여력이 전혀 없을 때도 있다.

아시다시피 의사란 직업은 옛 조선 시대엔 중인(中人)이라 일컬어 양반이나 선비가 하는 고상한 직업이 아니었으며, 지금 미국에서는 가장 스트레스 많이 받는 직업중의 하나이다.

心勞하는 독서인

중국고전에 "君子는 심로(心勞)하고 小人은 역로(力勞)한다."고 했듯이 유교체제 하에서 독서인은 마당 청소도 하지 않았다.

즉 선비는 지식적인 일을 하고 하인은 노동일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의사 직업은 지식과 노동을 합친, 말하자면 육체적-정신적 노동자의 범주에 속한다.

두뇌를 항상 긴장시켜 의학학문을 활용해야 하고, 육체적으로는 동분서주해야 하는 중노동자나 다름 없다고 하겠다.

이렇듯 하루 종일 일에 지치고 나면 머리와 다리가 무거워지는 직업이 의사이다. 그런 점에서 다음 찬송가처럼 아침부터 열심히 일하고서, 밤이 오거나 숙직 없는 주말이 기다려지고 그때 가서 읽고 싶어서 쌓여둔 책과 대면하게 되는 즐거움이 있다.

(어둔 밤 쉬 되리니 네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즉시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책이 그렇게도 좋으면 옛 선비답게 작가나 학자지망생이 되지 못했나?고 의문이 가겠지만, 천재나 특수한 행운아가 아니고서는 이러한 직종으로는 밥벌이하기 힘들테니 자식을 가장 위하는 부모의 뜻을 받들어 생활안정을 위한 전문직을 찾게 된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항상 내 직업에 대해 다형으로 여기고 만족하고 있는 사람이다.

열심히 일해서 생계를 마련하고 난 다음에야 거침없이 자기 취미생활에 몰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晝耕夜讀이란 말을 실감하고 있으니, 낮에 밭 갈고 밤에 책 읽는 우리 조상의 전통을 나는 이어 받았노라고 자부해 본다.

그래서 논어의 "일한 뒤에 기운이 남으면 글을 읽고 쓰고 즐기라"는 말이 고맙게 들린다.

학문과 취미생활을 뒷받침하는 데는 먹고사는 직업이 필수조건이다. 천하에 뜻을 둔 유비현덕(삼국지)은 돛자리를 짜서 팔아 생계를 꾸렸고, 장자(莊子)도 쫓신장사하면서 사색하고 저술 활동을 했다. 여기비하면 면허증 갖고 당당한 기술가진 사람은 여간 행운아가 아니다.

나로 말하자면 애들이 자랄 때 까지 30과 40대 연대에는 주경야독이 힘든 바쁜 세월이었지만, 자녀들 장성한 후의 50대 후반이 되면서부터 여러모로 여유가 생겼으니 이때부터 글 쓰기도 시작했던 것이다. 50대 문필가의 입학생이 되었으며, 의욕만 있고 타고난 재능이 부족한 사람이라 긴장되고 노력해야 하는 고역이 있으니 아직 아마추어 영역에서 해매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글 읽기'만은 여간 즐거운 일이 아니다.

공자는 學而時習之 不亦悅乎(학문을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해서, 독서가 인생의 큰 즐거움의 하나라고 가르쳤다.

학자출신 이효상 선생(작고. 국회의장)은 이 즐거움을 두고 "책은 읽을수록 마음의 체중이 늘어난다."고 표현했으니 실감나는 말씀이다.

옛날 중국선비 한 분은 "사대부가 사흘만 글을 읽지 않으면 거울보기가 미안하다"고 했다. 마음의 영양이 없어 수척해진 마음이 초라하게 비취 보인다는 말이다.

독서기는 책을 많이 읽을수록 행복 지수가 높아지고, 지식욕은 과할수록 좋다.

잘못 자란 東道

동양선비가 자랑하는 독서인의 글 공부는 옛날부터 벼슬과 돈벌이를 위한 하나의 방편이 되어 왔음을 부정할 수 없다. 옛날의 과거(科擧)와 현대의 고시(高試) 그리고 면허증 취득을 위한 글 공부가 바로 그것이다.

상류귀족층에 속하지 않은 사람도, 어려운 글들을 외우고 과거시험에 합격하면 그만한 보람이 있어 사대부(士大夫)라는 존엄성을 갖춘 지배계급이 된다. 그렇게 되는 날에는 부귀영화가 절로 굴러 들어오게 되기 마련이다.

유교사회에서의 글공부는 신분과 경제적 위상을 높이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1천년 전 송(宋)나라 때 이미 이러한 사실을 알리는 시(詩)가 있으니, 다음과 같다.

<부자가 되려고 논밭을 살 필요가 없다. 책 속에서 저절로 천석 쌀가마가 나오리라.>

고대광실 높은 집을 지을 필요가 없다. 책 속에서 저절로 황금집이 튀어나오리라.

외출할 때 동반자 없다고 불평하지 말라. 책 속에서 차마(車馬)가 계속 나오리라.

대장부로 태어나서 보람 있는 인물이 되려는 자여, 고생을 사서 창문을 향해 경서(經書)를 읽을지어다.>

이 시를 현대어로 의역해 보면,

<글 공부 열심히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에 통과하여 지위 높은 사회 명사가 되어 정경유착에 동반자 되는 날에는, 부귀영화가 절로 굴러 들어오리라.>

옛적과 근대엔 글 공부로 지배계급이 되는 길이 열려있어, 독서가 출세도 구역할도 했다는 사실이 유교가 남긴 크나큰 오점이기도 하다.

그러나 근래의 총칼이나 흉위병을 앞세운 쿠데타로 등장한 주체세력에 비하면, 출세수단치고는 어려운 길이었다고 하겠다.

지금은 글 공부로 전문직 기술진의 높은 자격을 얻어 사회에 공헌하는 대가로 좋은 수입과 대우를 받는다는 점에서, 선비정신이 승화하여 현대적 전문직으로 발전했다고 좋게 풀이해 본다.

그러나 여기서 진짜 글 공부는 여가 선용과 취미로 하는 교양적인 독서를 말하고자 하며, 이러한 독서가 나와 같은 노년기 인생에서 가장 바람직한 도락이 되기를 바란다.

숨 가쁜 생활전선에서 교양적인 글 공부에 열중했던 은퇴전의 인생을 "한 손에 막대(東道=독서)잡고 또 한 손에 가위(西器=기술)잡은" 기간이라 한다면, 노년기 독서는 유유자적(悠悠自適)하며 황혼기에 도전하는 인생의 즐거움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노인상은 마치 머리 숙인 벼처럼, 원숙하고 겸허하게 자기생애를 거두려는 모습이라 생각하고 스스로 만족해 본다.

전자미디어 문화에 밀리는 활자문화

여태껏 인류문화는 독서를 주축으로 한 활자문화였다. 그러나 20세기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텔레비전과 컴퓨터 등 전자미디어가 보급됨에 따라, 차츰 활자문화는 이러한 전자문화에 밀려서 위축 되어가고 있다.

어린 학생들은 책 읽기 대신 컴퓨터 게임에만 열중하는 '게임보이 시대'가 되었고, 학부모와 언론은 운동부족으로 오는 체중과다와 건강문제를 염려하고 있다.

독서로 깊은 인생사를 배우고 사색해야 할 학생시절이, 압압한 미디어 지식으로 대치되는 시기로 변모된다면 그만큼 인간의 지성이 격하될 것이다.

오래전 한국에서 아동들의 닌텐도 게임이 간질병을 유발한다는 뉴스 때문에 부모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고 들었다. 여기에 대해 이어질 씨는 뜻 깊은 논평을 한바 있음을 나는 아직도 기억한다. 전자미디어에 장기간 노출됨으로서 한국부모들이 걱정하는 간질병에 걸릴 확률은 많아야 백만 명에 1명에 불과하며, 현재 게임보이세대 100%는 '활자기피증'과 '반독서병'에 걸려 있다는 사실을 그는 지적했다. 또한 이 어렸씨는 로마제국이 멸망한 원인은



밤 하늘

인 정 길(70)

불꽃 닳아 빛나는 열정이
빛 밤을 뒤듯 마구 쏟아지는
별 많은 밤하늘이 신비로워
들뜬 가슴은 잠을 잃었는데
추억을 자극하는 해맑은 달빛이
이룰 수 없는 꿈처럼 애잔하구나

안타까운 유성의 운명인냥
순간을 지나치는 삶들이
의미없이 가는줄을 그으며
깊은 밤 피안으로 사라지는데
해가 지면 다시 흐르는 은하수는
저 먼저 하늘간 혼백들의 자취인지

알지못할 우주의 성스러운 정취가
내 품 속에 스며드는 이 밤에
세포마다 두루 맺히는 허무함은
아무리 술잔에 매달려 애원을 해도
채워지지 않는 사차원의 한계처럼
어찌할 수 없는 업인가 보다

납으로 된 그릇을 썼기 때문이라고 한 사학자 말을 인용하며, 대제국을 멸망시킨 눈에 보이지 않는 만성 남중독처럼 '반독서병'이 서서히 인류의 사고와 행동을 위축시켜 멸망의 길로 가게 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참으로 공감 가는 평이다.

술과 담배의 過소모국으로 세계의 선두를 달리는 한국에서, 통계에 나타난 도서구입비는 '선비나라'의 체모도 없이 선진국의 말단을 차지한다니 너무나 한심하다.

바른말 하기로 소문난 저술가 K독서는 "한국기독교인은 독서를 멀리하는 것이 특징이다"고 말했는데, 아마도 성경만 읽는다는 암시일 것이다.

여러 결점을 지닌 유교에서도 글 읽고 사색하는 독서인을 받드는 '선비정신'만은 우리가 되살려야 할 일이다.

일본 동경의 책방거리(神保町)는 몇 불력을 차지하고, 하루 종일 산책해도 지루하지 않다. 시카고나 뉴욕 일본서점에선 줄을 지어 책을 구매하는데, 한국서점들은 한산하기만 하고 비디오 대역로 현상유지한다는 말을 듣고있다.

전자미디어문화가 진시황처럼 활자문화를 소멸시키고 그 결과 물질문명만 남고 정신문명이 사라져 버릴까 두렵지만, 기우(杞憂)이기를 바랄 뿐이다.

빨랑빨랑 속도를 좋아하는 한국에서 신문 한쪽 읽거나 인터넷에서 얻은 짧은 지식으로 아는 척 지껄이는 현대인이 늘어난다면 그것은 망국으로 가는 길이고, 이럴 때일수록 꾸준히 독서하며 사색하는 조용한 옛 선비가 그리워진다.

자랑스럽게도 활자문화의 시조는 우리 한국조상이시다. 1972년 유네스코는 지금 파리의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있는 불경책(直視心經)이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본이라고 공표했으나, '구텐베르크' 보다 70년이 앞선 1377년 '고려'시대 작품이다.

천박한 물질문명과 일맥상통하는 '전자미디어' 문화를 우리는 이용하되, 우리의 정신과 지성을 키워주는 '활자문화'를 지키는 일이야말로 현대 독서인의 책무라 하겠다.

독서를 통한 활자문화 창달에는 다량의 정신적 에너지가 소요되고, 여기엔 우리의 노력이라는 육체적 에너지가 수반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동도(東道)생활에 전념할 수 있는 우리 노년기 인생을 생각해 보았다.

허허 벌판에 외롭게 서 있는 트로이 목마를 본 후 터키 국경을 넘었다. 트로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그리스의 장군 오딧세우스는 그의 고향 이타케 섬으로 돌아 가기 위해 십년이나 기나긴 세월을 보냈는데 우리는 하루도 걸리지 않은채 이렇게 쉽게 그리스 땅을 밟았다. 신화 속에 날이 저물고 신화 속에 전쟁도 치르고, 신화 속에 문화가 발달된 그리스에로의 진입은 많은 기대감과 설레임을 동반했다. 도시 자체가 영원 속으로 사라진 트로이를 본 상실감 때문일까...? 그리스에 대한 나의 호기심은 우선 트로이 전쟁을 일으킨 고대 그리스 신들에게로 향할 수 밖에 없었다. 10년에 걸친 전쟁으로 트로이를 초토화 시킨 두 나라의 싸움도 세 여신들의 질투 때문에 발생했다는 호머의 일리아드 때문이다.

제우스 신의 아내인 헤라와 지혜의 여신 아테네 그리고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는 서로가 이 세상에서 자신이 제일 아름답다고 믿고 있었다. 그러다가 어느날 공식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여신을 뽑아야 하는 운명적인 날이 돌아왔다. 불화의 여신 에리스만이 던진 황금 사과가 화근이었다. 그 황금 사과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 라고 쓰여져 있었기 때문이다. 세 여신은 자신이 황금 사과를 가져야 된다고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았다. 판정을 해야 하는 제우스 신은 입장을 곤란했다 조강지처인 헤라의 손을 들어 주자니 자신의 애인이며 아프로디테의 어머니인 디오네와 또 다른 애인인 아테네의 어머니 메티스의 눈치를 살펴야 했기 때문이다. 화대의 바람쟁이 제우스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고민하다가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에게 판단을 맡기기로 한다. 헤라는 자신을 제일의 미녀로 뽑아주면 유럽과 아시아의 통치권을, 아테네는 전쟁에서의 승리를 그리고 아프로디테는 세계 제일의 미녀를 주겠다고 조건을 내 세웠다. 하지만 젊은 트로이 왕자는 통치권이나 전쟁의 승리 보다도 미인을 원했고 이로써 아프로디테는 황금사과를 자신의 소유로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제일 아름다운 미의 여신이 되었다.

약속대로 파리스는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 헬레네를 만나게 되고 한눈에 반한 파리스는 헬레네를 데리고 트로이로 도망쳐 오게 된다. 왕비 헬레네를 빼앗긴 스파르타의 왕 메넬라오스는 격분을 참지못해 전쟁은 일어나게 되고 트로이와 그리스 두 나라는 수 많은 영웅과 신들을 동원하면서 10년에 걸친 기나 긴 싸움을 하게 된다.

호머는 트로이 전쟁이 끝나고 300년 후에 일리아드와 오딧세이를 써서 트로이 전쟁과 오딧세우스 장군의 파란만장한 귀국길을 실전처럼 신화로 남겼다. 그리스의 언어를 통일했다고 할 만큼 호머는 가장 뛰어난 언어의 음유시인이었다. 호머가 없었다면 트로이 전쟁도 오늘날 까지 유명세를 지니고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 목마를 성안으로 끌어 드린 트로이의 왕 프리아모스의 잘못된 판단으로 천추의 한을 남긴 트로이는 지구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갔는데 승전국 그리스는 현대와 고대를 아우르는 조화를 멋있게 이른채 지중해의 온화한 기후 속에 찬란하게 빛나고 있다.

터키와 그리스는 인접 국가로 고대 도시때 부터 근대까지 정복 당하고 정복 하면서 문화적으로도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은 공기 부터가 완전히 다른 두 나라로 대립하고 있다. 기독교 초기 1세기부터 사도 바울과 요한의 선교 역정을 함께 이어간 이웃

이었고 기독교 문화를 함께 공유했던 두 나라지만 11세기부터 불어닥친 이슬람교의 거센 열풍으로 완전히 이슬람 국가로 변한 터키와 기독교 문화를 유지해온 그리스는 이제 돌아갈 수 없는 먼 길을 돌아 각자의 길을 걷고 있다. 하늘을 찌를듯이 우뚝 솟은 첨탑도 온나라를 뒤흔드는 코란 읽는 소리도 그리스에서는 찾아 볼 수 없고 산 위



신화의 고향 그리스

수필가 정재욱(송관호 '64 동문부인)

페르테는 신전

에 우뚝 솟은 신전과 깨끗하게 정돈된 현대 도시가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다. 터키가 우울하고 긴 겨울이라면 그리스는 따스한 봄날 같다. 모든게 밝고 환하다.

그리스 문명은 기원전 2000년부터 크레타 섬에서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음유시인 호머가 일리아드와 오딧세이를 쓴 후 고대 그리스 역사의 뚜렷한 획을 긋기 시작했다. 민주주의 산실이고 4년마다 열리는 근대 올림픽의 메카이며 철학과 역사는 물론 의학의 창시자인 히포크라테스를 비롯해서 오늘날 근대 문명의 발판을 이룬 모든 것은 이렇게 고대 도시 그리스에서 시작이 되었다.

아크로폴리스에 우뚝 서 있는 페르테는 신전은 그 규모나 웅장함에 있어서 현대의 건축미를 뛰어 넘고 있다. 유네스코 국제문화재 제 1호를 기록하고 있는 이 신전은 그리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며 자존심이고 영광이다. 페르테는 신전은 지혜와 번영을 상징하는 신성한 여신 아테네 위해 만든 신전으로 15년의 긴 세월을 걸쳐서 페리클레스 시대에 다시 재건되었다. 이 거대한 신전도 역사의 물결을 피해 가지 못한채 그리스 신들이 힘을 잃고 올림프스 신으로 올라가기 시작할 무렵 새롭게 유일신으로 발돋움한 기독교의 물결을 타고 올소독스 교회로도 개조된적이 있고, 터키의 정령 하에서는 이슬람 사원으로도 사용된 비운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정신적으로야 고통이 많았겠지만 아테네 여신의 미모에는 손상이 없었다. 그런데 그 후 17세기 말 베니스인들에 포위 당했을 때 대포의 공격과 이들간의 화재로 파괴되고 불타 없어져 지금의 모습으로 남겨진 불운을 맞게 되었다 현대의 공법으로는 다시 재건하는게 불가능 했을까? 아니면 올림프스 산에서 칩거하고 있는 그리스 신들의 부재 때문일까? 기동만 서 있는 아테네 여신의 모습이 안타깝기만 하다.

세월의 무게와 손상된 몸의 마디 마디를 치료 받느라 여신의 하얀 몸은 무거운 철근에 얽어 매어 이제는 늙어 탄력을 잃은 속살을 드러낸 채 세월의 무상함을 말해 주고 있다 하지만 밤이면 특수 조명 효과로 화장을 해서 아직도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테네 시가를 비추고 있다. 그리스의 마지막 밤에 건너편 디오니소스 찻집에 앉아서 거품 많은 커피 한 잔을 앞에 놓고 산 위에 높이 떠있는 아테네 여신의 화려한 변신을 보는 것은 환상 그 자체일수 밖에 없다. 도시의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있는 파르테는 신전이야 말로 바다에 떠있는 등대처럼 아테네인의 길잡이이며 수호신 역할을 아직도 당당히 해 내

고 있음을 본다. 바다의 신 포세이돈과 지혜와 번영의 신 아테네 여신 사이에 벌어진 싸움은 아테네 시민에게 풍요를 약속하는 올리브 나무를 자라게 한 공로로 아테네 여신의 승리로 돌아갔고, 여신을 기리기 위해서 세워진 신전이 바로 페르테는 신전이다. 신전 옆에 위치한 아크로폴리스 박물관에서 넓직한 어께

고 똑 같은 결점도 가지고 있는 생활속의 신이었다. 이렇게 다신교의 신들은 일신교의 신처럼 엄하지도 않았고 윤리 도덕을 가르치는 잣대도 없었기 때문에 결점이 있어도 상관이 없었다고 생각했다. 그리스에서는 인간의 해이해진 윤리 도덕을 신대신 철학에 맡겼고 그리스 처럼 신들이 많은 로마는 그러나 신이 아니고 법에 의해 인간을 다스렸다고 전한다. 그리스의 철학과 로마법은 그래서 오늘날 까지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있는지 모른다. 그리스 철학의 아버지 소크라테스는 신과 인간과 자연을 알려고 매일 신전에 가서 기도했고 신전에 써있는 문구 "너 자신을 알라"에 의문을 품고 그에 대한 해답을 구하려고 끊임없이 고뇌하고 사색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나는 내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뿐"이라는 명언을 남겼다.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고 상대방이 말문이 막힐 때 까지 토론하기를 좋아했던 그는 자신의 해박한 지식과 풍부한 경험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모르는 것을 알아 냈을 뿐이라고 겸손한 답을 했다. 제자를 가르치고 그의 사상을 전수 했지만 그는 자신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 책 한 권도 쓰지 않았다. 그의 제자 플라톤에 의해서 대화편에 스승의 사상을 집대성한 저서가 있을 뿐이다. 소크라테스는 플라톤을, 플라톤은 아리스토텔레스를 낳았고 진리와 지혜를 바탕으로 인류를 밝히는데 두었던 그의 사상은 아직도 퇴색하지 않고 빛을 발하고 있다. 하지만 고대나 현대나 권모술수는 판을 쳤고 소크라테스도 반대편의 모략으로 젊은이를 선동하고 사회를 교란한다는 죄목으로 사형을 당했다.



디오니소스 극장

이 많았고 맹수와 노예들의 싸움도 벌어졌던 이 원형 극장은 2세기에 지어져서 지금껏 사용되어지고 있다. 음악회가 펼쳐지는 여름 밤이었다면 얼마나 근사 할까...? 오색 조명을 받으며 무대에서 열창하는 조수미를 그려본다.

따스한 기후에 환상적인 파란 바다 솔솔 부는 실바람 우뚝 우뚝 솟아있는 신전 척박한 땅이지만 어디에서나 잘 자라는 올리브 나무의 풍요, 이런것들이 그리스에 많은 신들과 철학자들을 탄생시킨게 아닐까 생각된다. 자신의 미래를 점치기 위해 여렸을 때부터 델피 신전을 찾아가 신의 계시를 받은 후 인생의 진로를 정했다는 그리스인들은 모든걸 신들에게 맡기는 생활을 했다. 신들의 왕인 제우스, 바다의 신 포세이돈, 사냥의 여신 아르미테스,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지혜의 여신 아테네, 전쟁의 신 마르스, 사랑의 신 에로스, 출구와 입구의 신 야누스, 술의 신 디오니소스, 불화의 여신 에리스만.....! 수많은 신들은 인간과 똑 같이 생활하

고 똑 같은 결점도 가지고 있는 생활속의 신이었다. 이렇게 다신교의 신들은 일신교의 신처럼 엄하지도 않았고 윤리 도덕을 가르치는 잣대도 없었기 때문에 결점이 있어도 상관이 없었다고 생각했다. 그리스에서는 인간의 해이해진 윤리 도덕을 신대신 철학에 맡겼고 그리스 처럼 신들이 많은 로마는 그러나 신이 아니고 법에 의해 인간을 다스렸다고 전한다. 그리스의 철학과 로마법은 그래서 오늘날 까지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있는지 모른다.

그리스 철학의 아버지 소크라테스는 신과 인간과 자연을 알려고 매일 신전에 가서 기도했고 신전에 써있는 문구 "너 자신을 알라"에 의문을 품고 그에 대한 해답을 구하려고 끊임없이 고뇌하고 사색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나는 내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뿐"이라는 명언을 남겼다.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고 상대방이 말문이 막힐 때 까지 토론하기를 좋아했던 그는 자신의 해박한 지식과 풍부한 경험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모르는 것을 알아 냈을 뿐이라고 겸손한 답을 했다. 제자를 가르치고 그의 사상을 전수 했지만 그는 자신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 책 한 권도 쓰지 않았다. 그의 제자 플라톤에 의해서 대화편에 스승의 사상을 집대성한 저서가 있을 뿐이다. 소크라테스는 플라톤을, 플라톤은 아리스토텔레스를 낳았고 진리와 지혜를 바탕으로 인류를 밝히는데 두었던 그의 사상은 아직도 퇴색하지 않고 빛을 발하고 있다. 하지만 고대나 현대나 권모술수는 판을 쳤고 소크라테스도 반대편의 모략으로 젊은이를 선동하고 사회를 교란한다는 죄목으로 사형을 당했다.

아테네 시내를 조금 벗어나면 산림이 울창한 공원이 있고 그 공원 안에 산자락을 파서 만든 감옥이 있다. 쇠창살로 문을 한 이 감옥은 소크라테스가 갇혀있던 감옥이다. 짐승의 우리 같은 굴은 철문을 두개나 가진 제법 넓은 공간으로 되있기는 하다. 제자들이 그를 탈출 시키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는 끝내 마다하고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갔다. 가정에도 쌀 한톨 보탬도 주지 않고 매일 거리에 나가 사람들과 입씨름만 하는 남편이 미워 쿠산티페라는 이름의 그의 아내는 욕설을 퍼붓고 구정물을 꺼 엮기도 했지만 아내가 꺼엮은 구정물을 뒤집어 쓰고도 그는 태연히 말했다. "천둥이 치고 먹구름이 일면 소나기가 오기 마련이지..." 그가 철학자이기에 이런 말도 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그가 갇혀있던 감옥 앞에서 그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울컥 치민다.

무너져 내린 아크로폴리스와 신전들이 거리 곳곳에 널려있는 그리스는 아름다운 지중해 경치와 온화한 기후를 발판으로 관광 대국으로 성장했고 그리스 신화로 사람들을 더욱더 매료시키고 있다. 그리스는 섬이 많기로도 유명하다 에게해라는 이름도 섬이 많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에게해, 지중해, 흑해에 둘러싸인 그리스는 그래서 해운산업이 세계 제일로 발달했고 고대 국가에서부터 전쟁에서도 해전에 강했다.

세계 여러곳을 다녀 봤지만 무너져 내린 기둥과 주춧돌만을 찾아 다니면서 여행을 해보는게 처음이다 고대 도시의 특수성과 신전의 웅장함에 옛 사람의 지혜가 더 훌륭하다는 감탄을 많이 하고 왔다. 그래서 신화의 도시 그리스가 내 기억에 오래도록 남을 것 같다.

〈합춘원 그리운 사십년〉은 서울의대 1964년 졸업, 18회 동기들이 졸업 40주년을 맞이하면서 사진과 문집을 한데 묶어 편집한 기념책자이다. (389쪽,비매품)

바람따라 꾸름따라 감물처럼 흘러간 사십년의 기록을 손에 들면 이제 고희의 문턱이 바라보이는 인생의 뒤안길을 걷고 있는 동기동창의 영예와 긍지와 하소연이 이목구비 잔주름을 타고 흘러나온다.

돌이켜 보면, 우리 학년 18회 졸업생 132명 가운데 81명이 당시 ECFMG의 감미로운 유혹에 빠져 조국을 등지고 정신 없이 태평양을 건너 왔다. 그렇게 많은 의대 졸업생들이 조국을 떠나기는 서울대학 역사상 18회 졸업생들이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그런 동기들이라 1974년 졸업 10주년 기념 행사는 서울과 뉴욕에서 따로 가졌다. 그러나 1984년 졸업 20주년 기념 행사는 한국 동기들이 열심히 준비하여 대성황을 이루었다. 동서양의 동기와 가족 모두 200여 명이 일곱 대의 전세 버스에 나누어 타고 서울관광을 마치고 경주로 내려가서 야단법석을 떠니 영문을 모르는 경주 사람들이 사흘동안 밥집을 설쳤다. 그런가 하면 25주년 때는 펜실베이니아 포커노 스키 타지에서 모두 170여명이나 한데 어울려 축제기분에 파묻혔다가 나올만에 깨어났다. 스키 타탕 휴양지가 생긴 이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더구나 한국인들이 한꺼번에

합춘원 그리운 사십년

오 태 희(64)

다녀가기는 처음이자 또한 마지막이다. 그 뒤에도 5년마다 한 번씩 왓지킬 기념행사를 가졌는데 이번이 여섯 번째인 40주년 행사로 마지막 공식모임이다. 나는 이 마지막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고 기념책자만 뒤지고 있으니 후회가 막심하다. 가족사진을 들여다 보면 한결같이 부모 모습을 그대로 복제한(?) 아들 딸들이 대견스럽게 앨범을 장식하고 고사리 손의 손자 손녀들도 함께 나서서 재롱을 부리고 있다. 그야말로 〈가족공학〉설계가 무척 성공적이다.

이제 40년 재회를 맞으니 성인이 된 아들 딸들은 부모 따라 의학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다른 전문 분야에서도 이름을 빛내고 있다.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손자 손녀, 가족 수가 모두 열 명이 넘는 동기부부가 수두룩 하다. 여러 민족이 함께 사는 미국에 정착한 동기들은 사위와 며느리가 한국인이 아닌 경우도 많은데 사랑에는 국경이 없다는 말을 실감한다. 동기 가운데 서울에

있는 박성덕 군이 손자를 맨 먼저 보았는데 이제는 손자 마닌 손녀가 할아버지와 할머니께 졸업40주년기념 축하문을 감격하게 써서 보냈다.

십년 전과는 달리 일부 동기들은 아호를 가지고 있다. 점잖은(젊지 않은) 나이가 되었다는 증거이다. 대부분 산천초목과 천지만물을 표현하는 한문 두 자로 만들어진 아호는 옛날 선비들이 본명 이외에 덩으로 가진 풍아한 이름이다. 아호를 별명, 익명, 필명, 가명 등으로 바꿔 생각할 수도 있으나 아호가 무엇이나 누가 물으면 썩스 피어가 아닌 나는 속 시원하게 영어로 번역할 수가 없어서 안타깝다. 기념책자에 의하면 전통적 아호를 가진 한국 동기가 열 사람에 미국 동기도 둘이나 있다. 송산(松山) 감신일, 정암(亭岩) 고영우, 행당(杏堂) 김철규, 제석(濟石) 박성덕, 소인(韶仁) 박성태, 일시(一是) 염용태, 혜석(惠石) 류지소, 백산(白山) 이한희, 성제(誠濟) 최덕영, 청죽(靑竹) 한영택, 하운(夏雲) 송관호, 영암(迎岩)

허선행, 모두 열 둘이다. 오랜만에 동기들을 만나면 "야, 입마" 하고 소리를 지를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호를 점잖게 부를 일이다.

미국에 사는 동기들 가운데는 새다리, 비교수, 에드워드, 프랭크, 헨리라는 신기한 아호를 가진 사람도 있다. 아니, 그게 아호인가, 코미디인가? 컴퓨터 앞에 앉아 아호 얘기를 하다 보니 갓 쓰고 넥타이 맨 기분이다.

다음으로, 문집 '우리의 이야기들'에는 동기들의 시와 이야기 57편에 가족들의 글까지 모두 72편이 실려있다. 모두가 주옥같은, 거짓말 좀 보태서, 신춘문에 예선 작품이나 다름없지만 하나 하나 다 소개할 수 없어서 마음에 걸린다.

끝으로, 미국에서 교육을 받고 자라난 이세들이 쓴 구김살 없는 영어 기고문을 읽으면 글에서 김치냄새가 나지 않는다. 영어가 모국어인 이세들인데 부모들처럼 구차스런 영어를 구사할 이유가 없다. 또한, 미국시민으로 떳떳하게 자라난 이세들이기에 인종차별을 별로 느끼지 않아서 다행이다. 오히려 부모들의 잠재의식 속에 숨어 있는 그릇된 인종차별 인식을 비판하고 있다. 하여튼, 그 어려운 시절, 조국을 등지고 이민을 결정한 부모들의 용기와 그 동안 경험한 이민생활의 어려움을 이세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되어 무엇보다 기쁘다.

빈센트 반 고흐 (Vincent van Gogh, 1853-1890)는 35세가 되던 1888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고갱과 연쟁을 벌인 후 낙심하여 자기 왼쪽 귀를 잘랐다. 이로 인해 그는 정신병자로 취급되어 치료를 받은 후 생 레미에 있는 정신병원에 장기 입원했다. 6개월 사이에 3번의 간질발작, 또 2번의 자살 기도가 있었지만 1년 후에 완치되었다고 병원 담국에 의해 관정되어 이곳에서 퇴원했다.

그 후, 그는 오버쉬라즈란 동네에서 요양했다. 그는 인상과 화가에 속하는 피사로의 소개를 통해 폴 가세 씨를 주치의로 삼았다. 가세 박사는 아마추어 화가로 여러 인상과 화가들과 교류가 있었는데 원래 철도회사 소속 의사였다가 그 무렵에는 고흐에서 반쯤 은퇴하여 지내던 상태였다.

그는 원래 우울증에 대한 논문도 쓴 적이 있을 만큼 우울증에 대한 일가견이 있었지만 자신의 생활 자체도 그리 즐거운 편은 아니었다. 그런 때문인지 의사와 환자는 금새 가까워졌다. 고흐는 미술상이던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에서 가세 박사에 대해 "우리는 진정한 친구이며 신체적인 모습이나 정신적인 면을 보아도 새로 맞은 형님과 같다. 그 역시 나 같이 신경이 날카롭고 극단적인 괴짜 인물이다."라고 했다.

주치의는 고흐가 근래에 그린 자화상을 칭찬하면서 자신을 모델로 초상화를 그려보라고 권했다. 이에 대해 고흐는 격하게 흥분했다. 그는 이 작업을 통해 초상화를 과거의 모든 미술가들처럼 마치 사진같이 대상을 똑같이 그리지 않고 현대적인 색채 감각과 화가가 받는 인상을 그대로 살려 자가의 감정을 표현하려는 새로운 형태의 초상화를 그리겠다는 야심을 나타냈다.

그는 가세 박사를 모델로 하여 여러 편의 초상화를 남겼는데 대부분 비쩍 마른 중년 남자의 짙은 우수를 그렸다. 1890년에 그린 박사의 초상화는 조금 독특하다. 그가 여동생에게 보낸 작품 설명을 보면 "가세 박사의 얼굴은 과일인 벽돌, 햇빛에 그을린 갈색을 주조로 했다. 머리털은 붉고 흰 모자는 푸른 언덕과 대조되어 있다. 그의 웃은 진한 끈색이다. 그럼으로 해서 그의 얼굴은 참백하게 보인다."

이 그림에서 가세씨는 정원에 놓인 새빨간 테이블 위에 왼 손으로 비스듬한 얼굴을 받히고 오른 손에는 디지털 리스의 원료인 보라색 폭스글로브가

지를 쥐고 있다. (이런 형태의 그림은 한 개가 또 있다.) 당시 폭스글로브는 의사를 상징한 것 같다.

위더링 박사가 폭스글로브에서 추출한 '디지털리스'가 고혈압에 큰 효과가 있었고 특히 "물혈성 심부전증"으로 생명이 경각에 놓인 사람에게 이 약을 사용하면 생명을 살린다는 사실이 의학계에서 널리 알려 나갔다. 그 결과 그 당시 '디지털리스'는 파방한 치료 약품이 별로 없던 시절에 거의 만병통치약이나 다름없이 취급되었다.

고흐는 정신 불안, 간질, 조울증 같은 증상을 보였는데 당시 디지털리스는 안정제로, 간질

이었다. 공복감 때문일까. 산토닌을 먹었기 때문일까. 해안을 꿈꾸는 밤새 때문일까. 햇빛도,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도 차마 밀로 필떡이며 기여드는 차가운 봄바람도 모두 노오랬다."

불과 20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기생충의 왕국이었다. 60년대였던가, 조사한 통계에서 전 국민의 95%였던지 98%였던지 기억이 확실하지는 않아도 하여간 전 국민의 대부분은 몇가지의 기생충을 몸에 지니고 살았다. 그 중에서도 사람이 먹는 음식물에서 영양분을 취한다고 알려진 회충이 가장 큰 문제였다. 회충이 많은 아이들은 가끔씩 회 배를

압상트는 드가, 마네, 로트렉, 반 고흐의 그림에도 여러 번 등장한다. 로트렉이나 고흐는 물론이려니와 시인 보들레르, 폴 베를레인, 소설가 헤밍웨이, 에드거 앨런 포, 에밀 졸라, 화가로는 피카소까지 이 술을 즐겨 마셨다.

톨루즈 로트렉의 경우, 이 독한 술을 물에 타거나 약한 술에 섞어 순화시키는 컵넛 꼬냑에다 섞어 마셨기 때문에 '진짜 원조 폭탄주'라고 칭할 만하다. 그는 이 혼합주를 '지진'이라고 불렀다. 시인 랭보는 이 술을 마시면 "가장 우아하고 하늘하늘한 옷" 같이 취해온다고 찬사를 표했다. 한편 오스카 와일드는 압상트를 마시고 있던 술집의 마루 바닥에서 튜립 꽃들이 피어나는 것을 보았다. 환각의 일종인 셈이다. 근래에 니컬 키드먼과 이원 맥그리기가 주연으로 나온 뮤지컬 영화 [몰래 루즈](2001)에서도 압상트가 미화되어 등장한다.

이 술의 주성분인 소태(Wormwood)를 남용하면 두통, 구역질, 구토, 그리고 환각과 정신병이 발생할 수 있고 두뇌에 손상이 생기는데 심하면 간질 발작을 한다. 1905년에 스위스의 한 노동자가 압상트 두 잔에 취해 가족을 몰살시킨 후로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는 이 술이 불법화되었다. 미국에서도 금주법이 발효하기 훨씬 이전인 1912년에 이 술의 제조가 금지되었다. 그러나 헤밍웨이는 압상트가 불법화된지 오래 후에도 이 술을 마셨는데 그의 작품 [오후의 죽음]이나 [누구를 위해 종은 울리나]에 압상트가 언급되어 있다.

시골에서 파리에 올라온 고흐에게 이 술을 소개한 사람은 로트렉이다. 그는 고흐가 압상트 마시는 모습을 1887년에 파스텔로 그렸다. 이 술에 맞든 고흐는 압상트 중독자가 되었고 [압상트 잔과 술병](1887), [정물, 양파가 있는 화판](1889)이란 유화에 그림으로 남겼다.

압상트에는 소태가 중요 첨가물인데 소태는 산토닌의 원료다. 산토닌을 복용하면 황색시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압상트 중독으로도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고흐의 황색시증의 주원인이 디지털리스 중독이라 가정한다 해도 화가가 즐겨 마시던 압상트 중독은 황색시증을 악화되게 만들었거나 더 장기화 시켰을 가능성은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

황색시증 (黃色視症)

치료제로 또 수면제로 널리 사용되었

다. 따라서 가세 박사가 고흐에서 디지털리스를 다량으로 사용한 것은 거의 틀림없는 사실일 것이다.

그런데 디지털리스의 부작용 중 자주 나타나는 증상의 하나가 황색시증(黃色視症, Xanthopsia)이다. 그러고 보면 특히 고흐의 만년 작품들 중에 노란 색을 유난히 많이 사용했다. 예를 들어 '별빛 빛나는 밤' '밤 카페' 그리고 여러 장으로 그린 '해바라기' 그림들에서 황색이 강조되어 있다. 노란 색이 특히 '별빛 빛나는 밤'에서 반짝이는 별들, '추수하는 사람들의 들판', 그리고 고갱에게 준 '자화상'에 뚜렷하게 나타나 있다.

고흐가 노란 색을 감격한 색깔로 느끼고 애용한 점도 사실이다. 그런 점을 감안한다 해도 디지털리스를 장기간 복용한다면 카메라에 노란 색 필터가 낀 것처럼 눈 안의 렌즈를 통해 비친 사물은 노랗게 보일 것이 당연한 이치 이겠다.

완벽한 문장을 구사하기로 한국 문단에서 유명한 작가 오정희 씨의 소설 [중국어인 거리]의 한 장면이다.

"삼거리의 미장원을 지날 때 치욕이가 노오란 소리로 말했다. 회충약을 먹는 날이니 아침은 굶고 와야 한다는 선생의 지시대로 치욕이도 나도 빈속

정 유 석(64)

않았고

심한 경우

회충이 영겨 야구공

보다 더 큰 덩어리를 지어 잠을 막을 때면 수술로 제거해야 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학교에 다닐 때 전 학생들이 산토닌을 먹는 날이 있었다. 그런 다음 날이면 산토닌에 취한 회충들이 잠에 붙어있지 못하고 대변과 함께 밖으로 나왔다. 이 산토닌의 부작용으로 사물이 노랗게 보이는 황색시증이 빈번히 발생했다. 요즈음 젊은이들에게는 낯설고 미개한 외국 오지의 이야기같이 들리겠지만 그 무렵을 살았던 분들은 오정희 씨가 묘사한 장면과 비슷한 경험을 했을 것이다.

산토닌은 16세기부터 구충제로 널리 사용되어왔다. 이 약은 '소태'(또는 '다복숙' Wormwood)에서 추출한다. 맛이 여찌 쓴지 성경에서조차 이 식물 이름이 곳곳에 인용되고 있다. 주로 구약에 등장하는데 대체로 고난, 슬픔, 재난, 형벌, 그리고 징벌의 고통 등을 상징하고 있다.

19세기 말 파리를 중심으로 예술가들이 모여 즐겨 마시던 에메랄드 초록색 술 압상트(Absinthe)에는 산토닌의 원료인 소태가 주성분이다. 알코올이 75%까지 되는 독주에 속한다.

원래 압상트의 어원은 그리스 말로 absinthion으로 "마실 수 없는"이란 의미를 지니고 있다.

紙上法醫

옹이 구멍이 무서워

노용면(55)

스물 다섯 살 남자가 머리에 총창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일주일 후에 사망하였다. 그가 사망한 날 아침 일찍, 그의 아버지와 그 사건을 담당한 형사가 나의 사무실에서 내가 출근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다음은 그 날 아침 그의 아버지가 내게 진술한 사건 내용이다.

그의 아들은 쓰레기를 처리하는 개인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다. 하루는 그가 쓰레기 속에서 권총 하나를 발견했다. 사건이 발생한 날 아침에, 아들과 아들의 애인 그리고 자기가 부엌방에 함께 있었다. 아들은 지갑을 꺼내, 애인에게 선물을 사 줄 돈이 있는지 세어보고 있었다. 그 다음 날이 그녀의 생일이었기 때문이다. 지갑속에 돈이 꽤 많이 있었다. (지갑속에 돈이 많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그가 왜 하고 있었는지는 나중에 알게 되었다.) 그때 갑자기 현관 밖에서 누군가가 큰 소리로 떠들었다. 아들이 자기가 현관 문을 열어 보겠다면서 일어섰다. 그리고는 설합에서 그가 쫓은 권총을 꺼내 모든 손에 들고, 현관 쪽으로 향했다. 그가 부엌 벽장 밑에서 뒷목을 구부렸는데, 그때 마침 그 총이 발사되어 머리에 총창을 입었다. 수술을 받았던 의사가 총탄이 그의 뇌를 스치고 지나 갔다고 했다. 자기 생각으론 총이 벽장 밑에 부딪치면서 발사된 듯 하다고 했다. 곁에 앉아 있던 형사가, 그 총에 결함이

있어 그렇게 발사된 것이 틀림없다고 하면서 계졌다. 아버지와 아들의 애인이 병원에서 일주일 동안 그를 간호했으나 별수 없었다.

아버지는 아들이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사고로 죽은데 대해 참으로 슬프다고 했다. 그러나 법의관실에서 그를 부검하지 않기를 부탁하기 위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다. "내 아들은 너무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나는 아들이 더 이상 다치는 걸 볼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구걸했다. 나는 사건에 관련된 경찰보고서를 받은 후에, 우리가 어느 정도의 수사를 해야 하겠는지를 결정하겠다고 그에게 일러 주었다. 그리고는 형사에게 구체적인 보고서를 곧 보내 달라고 했다. 그 형사가 슬픔에 빠진 아버지를 내 사무실에서 데려 나가는 것을 바라 보면서, 나도 그에게 동정심이 갔다. 어떻게 해서든 그를 도와 주어야겠다고 느꼈다.

몇 시간 후 그 형사가 보고서를 갖고 왔다. 그의 정성어린 처사는 참으로 눈에 띄었다. 그 보고서 내용은 변사자의 아버지가 진술한 내용과 별로 다른 바 없었다. 경찰이 이 사건에 대해 더 조사할 것이 없는가고 그에게 물었더니, "절대로 없습니다."라고 대답했다. 내가 그에게 일러 주기를, 우리가 변사자의 머리를 먼저 검사할텐데, 그 소견이 경찰 보고서와 어긋나지 않는다면 시체의 다른 부분은 부검하지 않기로

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가족에게도 알려 달라고 부탁했다. 내가 가족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의 호의였다. 사건조사에서 부검을 하느냐 안하느냐는 법의관이 결정한다. 그런데 가족이 부검을 반대하고 나설 때가 종종 있다. 그럴 때면 법의관이 사건에 관련된 환경상황을 잘 고려하면서 조심해서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날 오후 담당 법의관이 보고하기를, 머리의 부검소견은 가족과 경찰이 제공한 내용과 어긋나지 않는다고 했다. 우리는 이 사건을 과실사로 분류했다. 아주 간단한 사건으로 끝났다.

그런데 이 사건을 처리한지 한 달쯤 되던 날, 그 담당형사가 나를 찾아왔다. 사건내용이 완전히 바뀌었다면서 사과를 했다.

어느 날 밤, 변사자의 애인의 집에 전화가 왔다. 이랬층에 있던 그녀의 양 아버지가 전화를 받았더니, 딸을 찾고 있었다. 그가 이층에 있는 딸에게 전화가 왔다고 일러 주고는, 수화기를 든채 그녀가 전화를 받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딸이 수화기를 들자마자 저쪽에서 큰 소리로 그녀에게 고향을 지르는 것이었다. "너, 내가 한 말을 잊이 않았지?" 하면서 떠들었다. 딸은 몹시 겁에 질린 듯 그저 "예, 예."만 되풀이 하고 있었다. 대화를 엿들은 양 아버지가 그런 험박전화를 누가 걸어 왔느냐고 물었다. 그녀가 처음에는 전화내용에 대해 전혀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양아버지가 계속 어르고 타이르니 결국 털어 놓기 시작했다.

변사자는 그 날 아침 아버지가 쓴 총에 맞았었다. 아버지는 자기가 감추어 둔 돈이 없어졌다면서 오랫동안 아들을 행패했다. 그가 없어진 돈이 발견되지 않으면 아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하니, 아들은 그런 돈에 대해서 자기는 전혀 모른다고 계속 잡아땀다.

결국은 풀어서 사무기 사작했고 주벽질까지 하게 된 후, 아버지가 총을 쓴 것이다. 아들이 쓰러지자, 그는 방 한쪽에 있는 나무 벽에서 보이는 조그마한 옹이 구멍에다 손질을 하면서, 아들의 애인에게 소리를 질렀다. "저 구멍이 보이지, 내가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입을 다물지 않으면, 내가 네 머리에 저와 같은 구멍을 만들거야." "오늘 있었던 일은 모든 것이 이 아이의 처사로 생긴 실수였어." 라고 하면서 큰 소리로 고향을 질렀다. 그녀는 모든 것이 하두 무서워서, 이 사건에 대해 입을 꼭 다물고 있을 수 밖에 없었다. 그러다가 양아버지가 전화를 엿듣는 바람에 사실을 털어 놓게 된 것이다. 양 아버지가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다.

결국 변사자의 아버지가 모든 것을 자백했다. 법적으로는 처리가 아주 간단했지만, 법의관실의 입장은 좀 난처했다. 성공적인 범의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팀워크가 중요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내가 자주 하는데, 팀워크에 참여한 사람들중의 하나라도 실수를 저지르면 곧 연쇄반응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슬퍼하는 가족들에게 동정을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사의 궁극적인 목적에서 탈선해서는 안될 것이다. 무슨 정보건 그 액면에서 본 그대로 받아 드릴 수는 없다고 하는 사실을 또 한번 일러 주었다.

Reference:

- 1. Yong-Myun Rho: Forensic Pathology in Crimes of Violence, FBI Law Enforcement Bulletin 44:2(No. 10), 1975
- 2. Yong-Myun Rho: Medical Examiner's Authority. Challenges to Perform Autopsies, New York State Journal of Medicine 81:1687, 1981

올해 의과대학 졸업 35주년을 맞이하면서 본과 4년 의과대학 공부를 끝내는데는 다 함께 고생하고 서로 격려해 주었던 동기생들에게 늘 감사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여러가지 일들이 줄줄이 생각납니다.

재시의 공포에 시달렸던 삼낙응 교수의 생화학시간 정신없이 치렀던 해부학의 '땡'시험, 지루했던 O바보의 생리학, O바보의 약리학 강의 그리고 O바보의 심장학 강의를 생각합니다. 겁도없이 반백의 교수님들을 바보라고 서슴치 않고 불려왔던 첫 특목한 시절이 있었던 것 같다.

그 지겨웠던 ECFMG 공부도 지금 생각하면 많은 추억거리를 제공해 준다. 3학년 겨울방학에 ECFMG 공부하기전에 친구 유세화 군과 한 여행이 우리 우정을 더욱 깊게 해 주었고 지금까지 가슴에 깊은 친구로 남아있다.

장신호 교수님의 아드님을 친구로 둔 덕분에 여름방학동안 교수님의 연구실에 모여 시험문제를 같이 풀고 서로 배우던 일이 생생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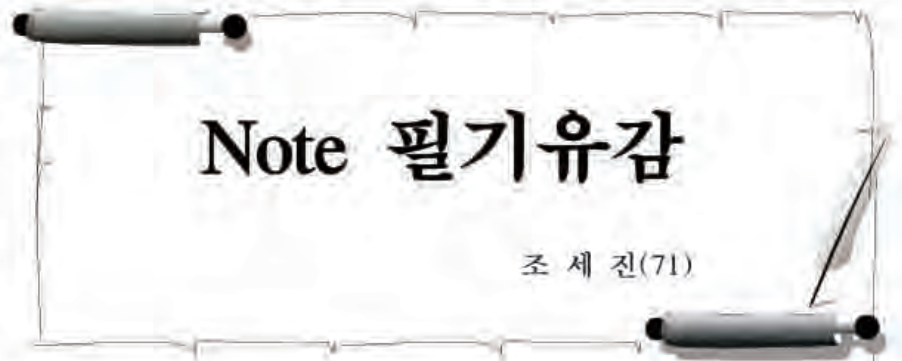
그때 같이 고생하고 즐기던 그를 멤버들은 졸업후에도 늘 생각나는 친구 동지들이기도 하다. 경희대의 장립교수, 고려대의 유세화 교수, 서울대의 신의철 교수와 김주현교수 그리고 정형외과를 서울에서 개업하고 있는 전순영 동기가 국내에 남았고, 미국에는 토마스 제퍼슨의대의 강유구 교수, 캘리포니아의 Keller의 김영철동문과 본인이 태평양을 건너와 살고있다. 도미했던 두 동기는 지병으로 일찍 타계하고 오일석 형님과 유일한 외국인이었던 고 Herman Knox가 같이 고생했던 ECFMG 공부 팀 멤버였다.

가을이 되어서 ECFMG를 통한 그룹 활동을 마감했었던 것 같다. 한라산 산정에서 추자도를 내려다 보면서 추자도가 전라남도냐? 제주도냐? 를 걸고 전북쪽 내기 퀴즈를 했던 것이 기억난다.

길고도 짧은 의과대학 생활중 아직도 기억에 제일 생생한 일은 대서소의 필생과 비슷했던 노트필기였던 것 같다. 변변한 교과서도 없었고 제복도

인즉 머느리 인터뷰 하시려고 오신 것이 더 확실한 이유였던 것 같다.

오시면 나이아가라 폭포와 벨티모아 장모넵 택은 꼭 들려야 하실 곳이라고



아직 도입 안됐던 시대에 꼭 필요했던 의과대학생의 필요한 생존수단이었던 것 같다.

이때 데어서 그런지, 졸업 후에는 될수있는데로 노트 필기를 아껴서 했다. 아니 아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하지 않는 버릇이 생겼다. 물론 그럴듯한 광경은 늘 준비되어 있었다. 필기해 놓고 다시 들여다 보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 들을때 경청해서 기억할 수 있을 만큼 기억하자는 것이 내 필기 안하는 죄명이었다.

이 나쁜 버릇(?)을 수정하는 계기가 생겼다. 늘 그랬듯이 역시 아버님 말씀이 옳으셨다.

1978년은 행운의 해 였던것 같다. 펠로우쉽도 끝내고 결혼했던 해 였으니 까 말이다. 남성출문이 평균치 이상으로 분비되었거나 문라이트하는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주일마다 꼬박꼬박 교회에 출석해서 받은 은혜였는지...

부모님께서는 한국 규수와 결혼한다니까 곧 쉽게 승락해 주셨다. 당시에는 부모님 중 한 분이 80세가 안되면 부모동반의 해외여행은 금지 되었었다. 다음해에 아버님이 60이 되셔서 환갑 기념으로 세계일주 여행을 하시는 길에 미국에 들리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말씀하셔서 로스앤젤스 - 캔사스 - 시카고 - 나이아가라 폭포 - 보스톤 - Bar Harbor, 메인 - 뉴욕 시티 - 벨티모아 - 워싱턴 DC로 한 여행 스케줄을 잡았다.

Bar Harbor Maine 내가 잭스 레보터리 썸머 세미나에 참석하기로 되었기에 겸사 겸사 이벤트였다.

Acadia National Park 안에 Lab이 있어 관광지로 손색이 없는 곳이었다. Itinery 를 말씀 듣고 부모님은 좋아하셨는데, 시골 메인에 2주일 가 있는다니까 조금은 실망하시고 의아해 하신 것 같았다. 라크펠리의 여름별장이 있는데라니까 겨우 한시름을 놓은것 같으신데 의문은 여전하셨다.

하루는 전년(1978)에 노벨상을 탄 Johns Hopkenis의 Nathan 박사의 특별강연이 있었다. 말씀하신 제목은 "SV 40 Verius의 Genome"였다.

아버님은 농촌진흥청의 연구원과 농과대학의 교수를 지내시면서 보리, 및 감자 고구마의 종자개발과 연구에 한평생을 보내신 식물유전학자였다.

Nathan 박사의 유전학 강의를 들어보시자니까 언어장애를 이유로 마다하시는 것을 옆에서 통역해 드립테니까 들어보시도록 권해드렸다. 서로 속삭이는

것이 방해될까보아 소강당 맨 뒷자석에 일찍와서 자리를 잡았다.

우리 열좌석에는 Jackson에서 Director 하시다가 은퇴하신 Greene 박사가 자리잡으셨다. 박사님의 60분간의 강연을 듣고 빌렸던 여름별장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버지께 소감이 어떠시냐고 여쭙었더니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해 주셨다. "야 노벨상도 벌거 아니구나 Nathan 박사를 길에서 만나면 꼭 학교 교사인줄 알겠다." "내 옆에 앉은 노인이 그렇게 열심히 노트하는데 너는 새파랗게 젊은녀석이 노트 안하고 건방지게 듣고만 있으면 되는거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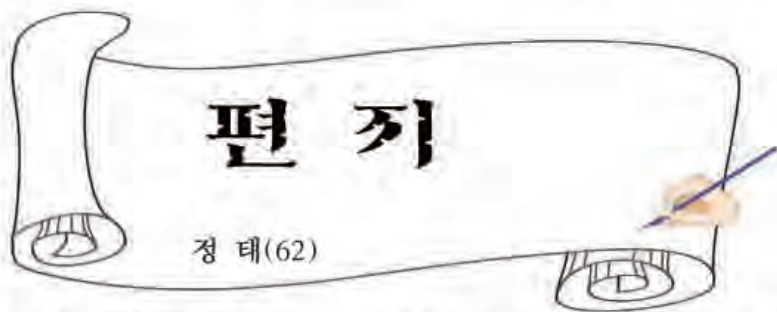
노벨수상자가 연미복을 입은 사진만 보시다가 수수하게 차려입은 Nathan 교수를 직접 보시고는 지울 수 없는 느낌이었던 것 같았다. 물론 교수 아버님으로서 꾸지람도 잊지 않으셨다.

미국을 거쳐가신 부모님은 벨지움에 유학중인 누이동생 집을 근거로 유럽 여행하시고 사우디 아라비아, 태국, 홍콩, 일본을 거쳐 꿈의 세계일주를 마치고셨다. 그후 어머니께서 편지를 하셨는데, 세계일주를 하시고 가장 기억에 남는곳이 메인이라고 하셔서 스위스라고 하실했어라고 생각했었는데 큰 놀람을 주셨다.

그 해 말에는 또 다른 놀라운 소식이 날아들었다. 1979년 의학 노벨상 수상자는 H2 Locus를 발견한 Dr. Greene으로 선정되었다. 우리 옆에서 Nathan 박사의 강의를 그렇게 열심히 노트하던 그 은퇴한 노인네가 아닌가?

"네, 아버지 저도 열심히 노트 필기 하였습니다."

2006년에는 졸업 35주년 Reunion을 일본 북해도에서 한다는 연락이 왔다. 반일 교육을 받고 자라서 찔찔한 것보다는 본인의 건강이 좋지 않아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무척 섭섭하다. 건강이 회복되어 40주년 Reunion은 French Riviera와 Amalgi Coast로 할까나?



편지

정태(62)

모든 것이 번개같이 빨리 지나가는 금세에 시간의 여유가 있는 황혼에 드는 처지에서 인지는 몰라도 흘러간 시간들이 자주 머리에 스쳐감을 어찌할 수 없다.

네 것 내 것없이 크고 작음 닳았던 알몸의 물장난쳤던 친구들(그들과는 편지할 길이 막혔지요!) 또 철이 들어 사귀었던 친구들, 그리고 여러 존경했던 어른들이 아롱아롱 마음에 안겨움을 자주 느낌도 황혼에 드는 탓에서 일게다 생각된다.

아이들 키우느라 또한 살림 장만하느라 밤잠을 아껴가며 분주히 살 때 한 두장의 정성어린 손수 쓴 편지를 받았을 때 그때의 즐거움과 감사함은 이제 회미해가는 기억에 불과하지만 금시인양 새롭기만 하다. 종종 한가한 틈을 타 그 옛 편지들을 서재함에서 꺼내어 한줄 한줄 읽어가노라면 그로 해서 마음에 안겨오는 가뭇한 즐거움과 기쁨 또한 감사함은 더 비할데 없다. 생각하니 더 더욱 그 편지들을 보내신 분들에게 심히 다시 감사드려본다. 아마도 이런 가뭇한 즐거움과 기쁨 또 감사함은 편지라는 매개로만 느껴질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짜사랑했던 여인에게 써 보았던 편지 생각하면 아직 이 마음에 그때 느꼈던 설레임과 망설임이 오늘날인양 느껴질 때도 그 편지를 보내지 못한 탓에도 있겠지만 짜사랑 편지 아니었으면 느껴질 수 없었던 일이라 생각된다.

또 멀리 이국땅에 가서 부모님께 보냈던 첫 안부편지 올림도 짜사랑 편지 못지 않음이 편지로만의 것이 아니겠는가!

생일날, 명절날들에 받았던 편지들 편지에 한 두글자로 정히 "편복과 평강 또 제사여의 하시길 빕니다." 적어 보냈던 되새겨보면 무척이나 흐뭇하고 감미로운 일이라 지금 느껴진다.

크리스마스나 새해가 다가온다. 온 세상이 이리해서 무척이나 들떠 분주하다. 선물준비에 또 카드 한장이라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보내려 하고 또 그리하는 때다.

지난 날에는 그 바쁜 삶을 하는 틈에도 카드를 몇 박스씩 사서 생각나고 친근했던 이들에게 보내곤 했는데 근래에 와서는 그리하려는 마음이 조금은 나이따라 약해져감을 어찌할 수 없었다.

더 더욱이나 편지쓰는 그 의욕이 나이 먹어감 같이 시들해져감을 어찌 할 수 없다. 시간이 없어서가 아닌데... e-mail이나 해볼까?

T.V. 광고에 한 여인이 우편 배달부가 무체통에 편지넣는 것을 보면서 자기 이메일이 있느냐? 물어보는 우스꽝스러운 장면을 본적이 있다. 나도 이메일을 무체통으로 해서 받는 것으로 아둔히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다.

손자 손녀들까지 할아버지가 이메일을 안한다고 항의와 구박이 심하다. 자식들은 이미 권유를 기권한지 오래고 나를 석기시대 사람으로 하여 무시해 버린지 오래다.

용고집이 한 이유로 컴퓨터 하고 열굴 맞대고 싶지 않다라고만 할 수 밖에...!

편리함을 전제한다면 이메일이 제일이다. 역설하는 사람이 많을테지만 삶은 편리함으로 살아가는 것만이 아닌 이리라. 걸어가는 사람 위에 뛰어가는 사람있을 것이고 날아가는 사람있기 마련인 것이 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닐까...

이메일도 하고 편지도 써가며 말이다. 고운 밍머린 손수 쓴 편지 받고도 답신을 못했던 흘러간 날들이 이 지금에 부끄럽기만 하다.

내가 한국에 귀화하여 처음 만나던 그때 공보실장하셨던 오재경 어른이

근래에 보내주신 편지 한장에 그 분의 Profile이 그려진 또 그 분이 항시 곁에 있는 이들에게 감설하셨던 "손에 손을 잡고... 나와 너 그리고 그 사람 그로 해서 우리가 되어 최고는 못되어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자" 라고 표상이 편지지에 무지개 색원들로 그려져 나타낸도 또 손수 빨간색 종이접이로 사랑을 나타내는 하트를 붙여 보내신 것도 다 편지가 아니면 가히 필리었다 생각된다.

편지지에 쓰여진 필체 하나 하나에 담긴 그 분의 아릿다운 마음가짐 사랑의 정기를 과히 프린트된 글자에서 찾아 느낄 수 있거나 할까?

또 나는 그 분이 우리가 아름다운 호숫가 집에 살았을 때 오셨다가 귀국하시어 보내신 편지를 액자에 넣어 벽에 걸어놓고 아침 저녁 지나칠때 마다 읽고 또 읽어보며 그 분의 정성어린 글체에 담긴 사랑의 마음을 읽으며 하루하루 더 용기를 얻어 분발할 수 있었다. 더욱이나 나에게 그리하여 줄 어른(들)이 하나도 없었기에 그리하여 주신 그 분의 따뜻한 마음(사랑)에 항상 가슴깊이 감사함을 되새기며...

이런 편지를 이메일로 주고 받았다면 그 정감이 과히 같거나 할까 의심해 본다.

친구를 만나면 종종 "너 이메일있어?" 하는 말을 자주 들었고, 또 왜 이메일 못하느냐? 구박 받은 일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이메일 못하면 현대인에 끼지 못해서인지 이것을 쓸 수 있고 없음을 한 사람의 격상에 관계되어 있는 것 같이 망상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음은 어찌 할 수 없다.

요사이 위안편지 보내도 함흥차사 격이 되어가고 보니 이메일 아니면 편지 쓴다는 개념은 먼 옛 이야기인양 실다.

과연 이메일로 사람 나누기가 짝막한 편지에 실린 "....나 너를 죽도록 사랑해!!" 하는 것과 여사하기나 할까 자문해 본다.

용타 스님의 책 "마음 알기 다루기 나누기"에 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삶을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데 실망, 아픔, 고통이 없을리 없겠지만) 순수히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하여 많이 보여주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마음에 들었던 장이 "마음을 어떻게 나

누나" 였다. 내 마음을 알고 잘 다룬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지만 우리 보통 사람으로서 매일 매일 이 허물 저 허물에 물들어 허덕이는 삶을 하여 가는 길에 내 마음을 열어 나눈다는 것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느껴 알 수 있었다.

바쁜 세상에 (황혼에 들어 시간의 여유가 있다 치더라도) 이 일 저 일 해가면서 서로 같이 자리하여 마음 열어 나눈다는 것 또 나눌 기회를 만들어가며 산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들 중의 하나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나 심신의 평강을 위해서라도... 서로 얼굴 맞대고 마음 나누기가 한시함이 못되는 바쁜 금세에 내 좁은 생각에 이메일보다는 간단하나마 손수 쓴 한 장의 편지가 그 진미를 더 잘 나타내지 않을까!

사사로운 일들로 바쁘다 구실하다 보면 이메일 보내기나 편지 한장 써 보내기나 거치장스럽기는 마찬가지 일테지만 나는 아마도 나이 먹어가는 탓에서인지 손수 쓴 편지를 받아 쓴 이의 사랑어린 정기와 정성을 그 글씨 한자 한자에서 느껴 읽을 수 있는 편지가 이메일에 남겨 놓는 메세지(여기에 오직 메세지라고 역설한다) 보다는 더 생기롭고 정기롭지 않을까 실토해 본다.

"안녕하세요? 안녕히!" 활자로 인쇄된 스크린 메세지보다는 생동하는 온기가 느껴지는 편지지에 쓰여진 편지 보낸 분의 정기어린 필체가 편지의 essence이고 그것이 마음 나눔의 진실한 장이 아니겠는가 역설해 본다.

소식도 소식이고 문안도 문안이겠지만 그 보낸 분의 정기어린 필체가 실린 편지가 금세의 이메일 시대에 더 더욱 어렵게 그리워 진다.

만능(?)의 컴퓨터가 사람을 나타내는 하트를 그려낼 수는 있어도 그를 종이 접시로 실히 나타낼 수 있을 소냐?

(형,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빕지 못한지 엇그제 같은데.. 다시 편지 올리겠습니다. 하루 하루 즐겁고 건강하고 평안한 나날을 보내시길 빕니다. XXX년 XX월 XX일

동생 XX 올림)
하여 허망히 매일 편지 한통 기다리며....

North Country



나 두 점(73)

나는 영화보기를 좋아한다. 영화감상이라기 보다는 영화에 나오는 아름다운 경치, 멋있는 배우들 그리고 재미있는 줄거리를 보러가는 것이고 영화를 보면서 교훈을 얻고자 하는것은 아니다. 그래서 심각한 명작보다는 보아서 즐거운 영화를 고르는 것이 나의 영화 선택의 방법이다. 그래서 이후의 영화면을 매주 보는데 이번에는 어떤 재미있는 영화가 나왔나 보기 위해서이다.

어느날 멋있고 아름다운 여배우 사진이 나와서 누군가 보았는데 이름이 특별해서 발음하기조차 어려운 사람이었는데 이사람이 North Country라는 영화의 여주인공으로 나온다고 한다.

한 여공부의 어려운 생활을 그린 이 영화는 내가 안보는 종류였는데 여배우를 보기 위해서 보기로 하였다. 이것은 출연마인 여인이 광산의 광부로 일하면서 역는 이야기이다. 이 여인은 고등학교시절에 학교선생님한테서 감감을 당하여 아이를 낳았다. 그리고 그후에 결혼을 하였는데 남편이 자주 때려서 헤어지게 되었다. 왼쪽 눈이 멀은 이 여인이 북쪽 추운 미네소타주의 친정집을 찾아가는 것으로 이 영화는 시작한다. 친아버지의 멸시, 성이 다른 두 아이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온 이

여인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천대는 나에게 이 여인에 대한 동정심을 불러 일으킨다.

북쪽 지방이라 가장 인기있는 경기는 아이스하키인데 이 여인의 큰 아들은 이것의 스타 플레이어 였다. 그러나 이 아들도 자기가 아버지도 없는 홀염마 밑에서 자라는 것에 대해서 수척로 생각하고 있었다. 더욱기 남자들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광산에서 일하는 여인에 대한 온갖 짓궂은 일들이 이 여인의 일을 더욱 어렵게 하였고 상대를 뒤집어 씌우는 식의 소문들은 이 여인의 입지를 더욱 어렵게 하였다. 이 아들은 결국 아이스하키를 그만 두었다. 그래도 이 여인은 두 아이들을 키우야 하겠기에 일을 계속할 수 밖에 없었다. 작은 수입, 주위 사람들의 멸시, 직장에서의 남자들의 희롱, 어린 두 자녀를 혼자서 키워야 하는 어려움 이러한 것들은 나는 평소애 생각해 보지도 않았고 생각해 보려고도 하지 않았던 것들이다.

나는 내가 일하는 곳에서 출연자들이 아이들을 데려오는 것을 수없이 보아왔다. 출연마들에 대한 나의 인상은 대체로 부정적인 것 들이었다. 그들은 대체로 불친절하고 비사교적이고 쉽게

화를 내는 편이다. 그렇지만 그러한 환경속에서 친절하고 사교적일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출연마들을 등한시하고 피하려고 하기 보다는 그들의 입장에 서서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겠다고 생각했다.

이 영화에는 이러한 대화가 나온다. 엄마가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아들에게 엄마 동료의 남편이 하는 이야기이다. "너의 엄마는 너를 가졌을 때

너를 버릴 수 있었다. 또 너를 낳았을 때 너를 나에게 주어 버릴수 있었다. 엄마가 없기를 바라는 지금도 너를 버릴 수 있었다. 그러나 너의 엄마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 너를 사랑하니까."

우리는 모두 좋으나 싫으나 머지않아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하게 된다. 우리 주위에는 우리처럼 행운을 타고 나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한번쯤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원고모집안내

서울대학교의과대학 미주동창회지 '시계탑'에서는 동문여러분들의 유대와 결속에서 오는 좋은 회지를 제작하기 위하여 원고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모집내용:

동기 및 동문소식, 지부 소식, 제언과 비평, 수필, 산문, 시, 기행문, 서간문, 독후감, 자녀들의 자랑 또는 소식, 사진, 그림 등의 작품, 특히 전공과목에 대한 새로운 의학 소식 등을 환영합니다.

게재 사양하는 원고: (1) 영문으로 쓴 원고, (2) 다른 신문이나 간행물에 이미 게재된 글, (3) 종교적인 내용

보내시는 방법:

학년과 성명은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관계 사진 등을 첨부하여 주시고, 원고는 한글을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컴퓨터 사용시는 World 혹은 아레아 한글을 사용하시고 Floppy Disc도 동봉바랍니다. E-mail로 보내시는 것도 환영합니다.

Damian B. Kim, M.D.

141-30 33rd Avenue, Flushing, New York 11354

Tel: (718) 460-5190 E-mail: dkim68@nyc.rr.com

남편이나 아내를 친한 친구 대하듯 대하면 부부간 싸움이 줄어들 것 같다. 그 짝꿍은 분이 부부싸움을 하면 그런 상소리를 입에 담아요? 하는 얘기를 종종 듣는다. 배우자를 대할 때와 친구를 대할 때와 사람이 달라져 이중 인격자처럼 보이는 사람이 흔히 있다. 부부간에는 흥취물이 없으니 성질을 부려 보는게 무엇이 나쁘냐고 변명도 할 수 있다.

사실 이중 인격자라면 큰 모욕같지만 세상에 표리가 없는 사람은 드물다. 구애 시절에는 그렇게 다정하고 친절하며 예의에 밝아 나를 공주 모시듯 하고 자기 간이라도 빼 줄 것 같더니 결혼을 하고 나서는 판 사람이 되었다고 불평하며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인 줄 몰랐었다고 사기당한 것처럼 꾸밈을 한다.

연애를 시작하면 내분비 기관의 활동이 점차 상승했다가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평균 십팔개월이 걸리며 사람도 따라서 뜨거워졌다가 식는다고 홀몬설로 결혼전후 부부간의 애정 변화를 설명하는 연구 발표도 있었다.

배우자가 결혼후에 변하는 원인은 홀몬외에도 여러가지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연애 시절에는 상대를 과대 평가한 자신의 잘못도 있고 잘 보이려고 단점은 감추고 자기를 과대 포장한 탓도 있다. 그래서 애인이 선녀같이 보여 다른 인간처럼 먹고 배설하는 사실을 생각지 못했다는 얘기도 종종 듣는다.

사랑에 눈이 멀어 보지 못했던 결점들이 쏟아져 나오면 멀었던 자기 눈을 닦하지 않고 자기를 속였다고 상대방을 탓하기 쉽다.

같은 집에 사나 화장이 지워진 배우자의 진짜 얼굴도 보게되고 체면과 가식을 벗은 본연의 인격도 접하게 되며 밤낮으로 동물적 기본 생리 현상도 목격하게 된다.

설상가상으로 세월과 함께 여자의 고운 기는 가시고 남자는 차츰 고개를 숙이니 이성간의 매력도 줄어 전기현상도 잘 일어나지 않게 된다.

기왕에 내 것이 되었으니 잘 보이려고 하는 노력도 포기한다.

사랑스럽던 애인이었지만 코를 골든가 귀나 코청소를 하는 모양이 두고두고 매력적일 수는 없다.

전에는 집안에 부부가 하는 일이 엄격하게 나뉘어 있어서 네 일 내 일을 따질 일이 없었다.

요즘은 남녀 평등이라 집안 일에 네

일 내 일의 구분이 없어 곧잘 노동쟁의가 생겨 옥신각신 다툰다. 이해관계를 자주 다루니 정이 떨어지기 쉽다.

말로 아내에게 이긴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할만큼 말로 여자를 당할 수가 없다. 해부학적으로 여자의 언어 중추가 더 발달했다고 한다.

노동쟁의가 일어날 때마다 부엌일, 청소 등 조금씩 남자의 몫은 늘게 되어 있다.

여자가 밥상을 정성껏 차려 남편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고 행복했다는 시대도 있었지만 왜 여자만 부엌에서 인생을 묻어야 하는냐? 항의하여 내

집안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으니 원색적인 감정이 노출될 것이며 배우자의 눈에 이중 인격으로 보일 것이다.

과거에는 부부간에 지켜야 할 예의와 규범이 있었다.

부부유별 부창부수 등 요즘 같으면 물매 맛을 규범이지만 그 시대에는 가정의 질서 유지에 도움이 되었다.

서양문화와 남녀평등의 도입으로 구시대의 도덕률은 물러났고 아직 새 도덕률이 자리잡지 못한 과도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

부부는 하늘이 맺어준 결합이고 죽어서도 한 자리에 간다고 믿고 남편을

야 한다는 아내의 주장을 받아 드려야 한다. 내가 한창 개업에 바빴던 시절에는 내가 일을 더 했던 것 같아 손해 보는 기분이 없지는 않으나 그 때 내 권리를 찾아 먹지 못했으니 시효가 지났고 억울해도 잇을 수 밖에 없다.

집안 일 균등 분배론에 추종자가 되면 자원 봉사는 줄어들 것이다.

강제노동 제도 하에서 자원봉사 활동이 미미한 예는 구소련이나 이북에서 경험한 바 있다.

흔히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여자로서 나서 남편 시부모 수발하고 자식 낳아 키워야 하는가 하는 낚두리를 들었으나 남자는 또 무슨 빚을 졌기에 여성 공무니를 따라 다니다 결혼하면 벌이다 다 바치고 나이 들면 업처시하에 매어 사는지 모른다고 말할 수도 있다.

꽃이 왜 단 꿀을 만들어 벌 나비 좋은 일만 하는지 불평할지 모르나 실은 벌 나비가 없으면 씨를 맺지 못할뿐 아니라 꽃이 존재하는 의미도 없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리고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에베소서)

모두 말씀대로 살면 내가 수필을 쓸 재료도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고린도 전서)

"결혼은 할만하다. 좋은 아내를 맞으면 행복할 것이고 못된 아내를 얻으면 훌륭한 철학자가 될터이니" (소크라테스)

"여자와 소인은 너무 멀리도 가까이도 말지어다" (공자)

위 말씀은 배우자에게 이중 인격자로 공격받는 분들에게 좌우명이 될 것이다.

당신은 죄인이라고 비난하는 사람을 향해서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시인하고 교회에서 교우에게 대하듯 배우자를 대하는 사람 즉 언행이 일치하는 사람도 세상에 있을 것이다.

나는 언행이 일치하지 못한 것을 알고 있으니 자기가 이중인격인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보다는 낫겠지 하고 자위를 한다.

도둑이 제 발에 저린다고 내가 아내에게 이중인격자로 보일 것만 같아 변명을 늘어 놓았다.

그러나 입이 화를 부르기 쉬우니 침묵이 금이라는 속담대로 입을 그만 봉하려고 한다.



임 낙 중(59)

주위에 남자가 밥도 하고 설거지를 하는 남자가 늘고 있다.

들으니 부엌이 아예 없는 집을 찾는 신부도 있다고 한다. 남편을 하늘이라고 가르치던 부모들도 옛날에 있었지만 요즘은 부엌에 들어서지 않는 남편은 이중인격자라고 비난 받기 쉽다.

동창이나 친구들에게 또는 교회나 집회에 나가서는 청소 등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집에서는 부엌 일이나 청소를 누가 더 하느냐를 가지고 시비를 한다면 이중인격자로 보이지 않겠는가?

컴퓨터와 텔레비는 당신 뉘이고 부엌일 청소는 내 몫이라면 내가 당신 식모나고 따지는 아내의 항의에 아무 하자가 없다.

밖에서 존경받던 의사였지만 집안에서는 자기를 abuse 한다면 Steveran의 소설에 나오는 Jekyki 박사와 Hyde와 무엇이 다르냐고 항의할 수도 있다.

밖에서 생긴 스트레스를 집에 와서 푸는 경우가 있다. 수술이 잘못 되었다든가 사업이 난관에 봉착했다든가 해서 화풀이 하는 남편을 결혼 초 같으면 연유를 알아내서 위로해 줄 수도 있겠으나 반대로 내가 자기 화풀이나 받아 주는 기생인가 하고 심통을 부리게 되면 사이가 가까워지기 어렵다.

또한 밖에 나가서는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맞게 싫어도 웃고 미워도 좋은 척 가면과 위선의 탈을 쓰고 산다.

받들던 시대로부터 남편도 싫으면 가라치울 수 있는 시대로 바뀌었다.

잠재의식 속에 배우자가 disposable로 변했으니 서로의 신뢰가 그만큼 변한 것이다.

즐거한 딸이 못살겠다고 친정에 돌아오면 너는 죽어서도 시가집 귀신이 라고 타일러 보내던 시대에서 그런 놀하고는 못산다 잘 돌아왔다고 동조하는 시대로 변했다.

부부가 동등한 위치에서 이해를 따지는 경쟁자가 되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물 신부름을 시키느냐고 호통을 치는 아내를 보고 밖에선 마음씨 착한 여자로서 소문난 아내가 이렇게 매정할 수 있을까 하며 아마 이중 인격일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얼마 전까지만해도 남자가 한두번 의도하는 것은 큰 사단 없이 넘어가곤 했는데 요즘에 그랬다간 버라이 날 것이다.

아내는 나를 구시대의 잔재를 씻지 못했다고 비난하는 의미로 이조시대 남자라고 부른다. 내가 어떻게 이 난국을 헤쳐 나갈지 생각해 보겠다. 첫째는 내가 이중인격자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한다. 남자가 살롱에 가서 재미를 보았다는 얘기를 들으면 부러워 하면서 여자가 호스트 바에서 놀았다고 하면 불결하다는 생각부터 나는 나의 이중 인격적 의식구조를 비워야 한다. 그리고 집안 일을 평등하게 갈라서 해

각종 소화제와 심지어는 민간요법까지 다 동원했지만 좀처럼 병이 낫지 않았다. 그래서 할수없이 유명하다는 한 병원의 의사를 찾아갔다.

의사: 증세가 어떻습니까?

환자: 뭐든지 먹으면 소화가 안되고 그대로 나와요. 오이를 먹으면 잠시 후에 오이가 뱃으로 나오고 가지를 먹으면 가지가 바로 나오고 뭐든지 먹으면 소화가 안되고 바로 나와요.

의사: 상태가 심각하군요.

환자: 선생님, 시원하게 변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의사: (잠시 생각 후에) 으음, 그럼, 똥을 한번 드셔 보세요. (이덕승)

정신과 병원에서

어느 정신병자가 바나나를 소금에 찍어 먹고 있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의사가 환자에게 물었다.

"왜 바나나를 소금에 찍어 먹고 있습니까?"

환자가 한심하다는 듯 의사를 쳐다보며 말했다.

"아니, 그럼 선생님은 이 짠 소금을 그냥 먹는단 말입니까?" (이덕승)

어려운 대학에 입학한 뒤로 거의 매일 술 마시고 늦게 돌아오는 아들을 보다 못한 아버지가 어느 날 아들을 불러놓고 대화를 시도했다.

아버지: 야 이녀석아 너도 이제 대학생이 되었는데 도대체 진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거냐?

아들: 진로요? 그거 참이슬로 바뀐지 오래됐어요. 그리고 많이 순해져서 맞이 예전 같지 못해요. (이희경)

로맨스 수학

- * 현명한 남자 + 현명한 여자 = 로맨스
- * 현명한 남자 + 우둔한 여자 = 점사
- * 우둔한 남자 + 현명한 여자 = 결혼
- * 우둔한 남자 + 우둔한 여자 = 임신 - 출처 불분명 (허)

농담골목

나이 많은 부인과 젊은 여인이 상점에서 나오는데, 갑자기 바람이 몹시 불었습니다. 노인이 입은 스커트가 바람에 날려, 속 뺨뜨가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노인은 계속 자기가 쓴 모자만을 움켜 쥐고 있었었습니다. 젊은 여인이 "아랫 속이 다 드러다 보입니다."라고 하니, 노인이 대답하기를 "그까짓 것 관찮아. 그런데 이 모자는 새 것이야." 라고 했습니다. (변)

두 노인이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여자분은 우산을 들고 있었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캄캄해 지더니 비가 쏟아져 내리기에, 남자분이 "빨리 우산을 펴주세요." 라고 하니, 여자분이 대답하기를 "아니요, 이 우산은 구멍투성이예요."라고 했습니다. 남자가 "그럼 왜 그걸 들고 나왔지요?" 하니, 여자가 "비가 오리라고는 생각도 안했거든요." 라고 했습니다. (변)

환자가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 하는 말이 "내 자신이 개 처럼 느껴져요." 라고 했습니다. 의사가 "언제 부터요?" 라고 물으니, "어린 감아지 시절 부터요." 라고 했습니다. (변)

의사가 할아버지를 진찰한 후 그의 성생활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가 대답하기를 "첫번째 할 때는 더워서 땀을 뻘뻘 흘리는데, 두번째 할 때는 추워서 땀이 떨어집니다." 라고 했습니다. 의사가 그의 대답을 확인하기 위하여, 할머니에게 그 이야기를 되풀이 했습니다. 할머니가 설명하기를, "첫번째 것은 대개 8월 즈음이고 두번째 것은 1월 즈음." 이라 했습니다. (김세-)

소화불량

30대의 한 남자가 어느날 갑자기 소화불량에 걸렸다. 약국과 병원을 오가며

2006 SNUCMAA Summer Convention

2006년도 Summer Medical Convention이 성대히 거행되오니
많은 동문들과 가족들의 참석을 바랍니다.

일시: 2006년 6월 25일(일) ~ 6월 29일(목)

장소: Taj Mahal Resort Hotel

Atlantic City, New Jersey / (609) 449-1000

오는 6월 25일 부터 6월 29일 까지 4박 5일에 걸쳐 Annual Summer Convention 이 Atlantic City, New Jersey 에 있는 Taj Mahal Resort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회장단과 준비위원들이 열심히 노력하여 예년과 같이 Scientific Program, 합춘회 Program, Golf Outing, 다양한 Evening Program 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우리가 처하고 있는 IT 세대에 적응하기 위하여 65년 동기 민경탁 동문의 주관으로 오후에 Non-golfer 들을 위하여 computer course를 준비 하였습니다. Computer에 관심있으신 분은 미리 회장단에 게 연락주시면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준비한 행사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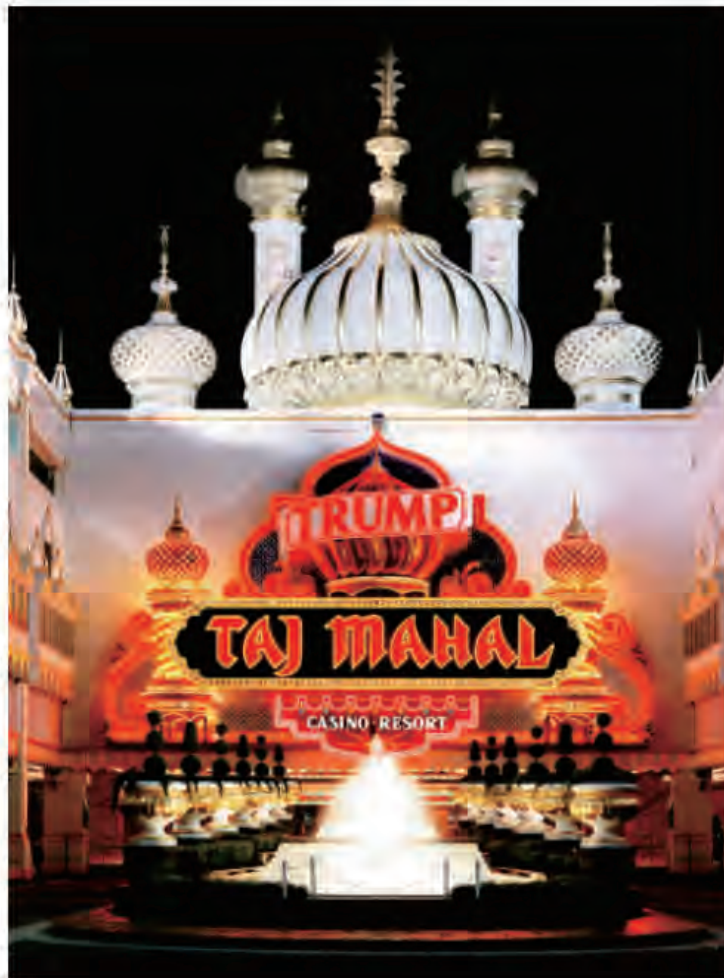
좀더 자세한 Schedule과 Information은 4월 호 시계탐을 통해서 발표되겠으며, Invitation 과 Brochure도 추후에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6월 25일 (일요일)

- 4:00 PM
Arrival, Check in, Registration
- 4:30 PM~6:30 PM
House of Delegates meeting
- 7:00 PM~12:00 AM
Welcome reception with lively music

6월 26일 (월요일)

- 6:30 AM~7:30 AM Breakfast
- 7:30 AM~11:15 AM Scientific sessions
- 1:00 PM~6:00 PM Golf outing (Alumni & families)
Shot gun at Harbor Pine Course
- For Non-golfer (Daytime)
여러가지 program과 activites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City Tour(Atlantic City), Historical Museum, Outlets 방문,
Board walk Shopping, Upscale Store shopping, Atlantic City Arts Center 등등.
- Exhibition of Photographs & Fine Arts :
Presented Alumni and Family members
- Computer course in the afternoon for non-golfer (Basic class: 2~3 hours)
- 7:00 PM Class Reunion Night
- Class reunion은 class별로 자율적 모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Class별로 dinner후 various show를 관람할 수도 있으며 short cruise dinner도



가능합니다. 학년대표들은 준비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월 27일 (화요일)

- 6:40 AM~7:30 AM
Breakfast
- 7:30 AM~11:14 AM
Scientific sessions
- 1:00 PM~6:00 PM
Golf outing (Alumni & families)
Shot-gun at Blue Herson Pines, West course
- 7:00 PM~12 Midnight - Dinner and Talent Show
- Class별 competition도 있을 예정입니다.
- For Non-golfers (Daytime)
전날 월요일과 마찬가지로 shopping, tour 등의 activities가 있습니다.
- 사진과 미술전시는 항상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 Computer course for non-golfers (in PM) : advanced class: 4 hours.

6월 28일 (수요일)

- 6:30 AM~7:30 AM
Breakfast
- 7:30 AM~11:15 AM
Scientific sessions
- 1:00 PM~6:00 PM
Golf tournament (Alumni & families)
Shot-gun at Harbor Pine course
- 7:00 PM~12 Midnight Dinner and Grand Banquet
Introduction of New President and Officers.
- For non-golfer (Daytime) - 전날들과 동일합니다.
- 사진 및 미술 전시는 항상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 Computer course for non-golfers (in PM) - Advanced class : 4 hours

6월 29일 (목요일)

- 7:00 AM~8:00 AM Breakfast (individual)
- 9:00 AM Check out Hotel, Departure

Summer Convention에서 뵙겠습니다.

- Convention Chair 권 정 덕(64) (718) 818-3099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ALUMNI ASSOCIATION OF NORTH AMERICA

172-10 45 Avenue, Flushing, New York 11358
e-mail: snucmaa@yahoo.com
Tel: (718) 888-2622 / Fax: (718) 888-2608